

지고 급히 달을 질 향여 그 바회를 향하고 단는다

그으히는 소리를 질으며 급하다라가나 허중으로부터 육지를 향하여 밍털히 부는 바람 소리에 그 아희의 부르지는 소리는 조곰도 투구 바회우에 있는 정남의 귀에는 드러가지 안이흐다 그으히는 옥남이니 옥남은 숨이턱에다아서 달음질 향여 오더니 점々갓가히오미 비로소 그 바회우에 있는 으히가 정남인 줄을 분명히 알았더라 그 때에 옥남은 이 모양을 보고 삼작놀녀여 얼골빛이 팔앗도록 변하여진다 그러나 정남은 그 몸의 위험이 목전에 급박하여 오느 줄은 조곰도 아지도 못하고 천연히 바회우에 서々있다

조슈가 미러 드러올 때에 는 그 바회가 그 장 위험한 일은 옥남이가 본 리익기 안는 바이오 바람에 불너드러오는 물결은 투구 바회가 서여지라하고 밍호갓치 밀녀와서 부딪치고 다시 허여져서 그 바회를 에워쌀 때에 는 허변에 성장하여 물에익숙한 아희들도 능히 허엄을 치지 못하느 줄도 옥남은 임의 지세하야는 바이라 그러하나 옥남은 만란을 무릅쓰고라도 엇더케라도 정남의 위리함을 구하고저 결심하였더라

옥남은 조력할 사람이나 후시 근처에 있는 가하야 급히 사면을 도라보니 멀니보이는 언덕우에 로용한 스름이 그 물을 치노라고 정신업서 굽설々々하고 잇슬뿐이오 멀니 보이는 돌흔 산우에는 초동목수삼사명이 나무하느 그림자가 보일싸

름이라 옥남은 인가를 차져가서 스름을 엿어 구원코져하나 인가잇는 곳은 이곳으로부터 더욱 초원하고 나모하느 스름들을 다리고 오자하나 그 동안에는 밀어드러오는 허슈가 밭서 그 바회를 덮혀서 가련흔 정남으로 하야곰 찰흙흔 죽엄을 면치 못할지라 오히려 지금은 미러드러온 물이 심치 아니하니 찰하리이세를 일치 안이할면 심철팔은 정남의 몸을 구하기 능할가하며 다시 허중을 바라보니 그 바위 근처에 조고마한 바회들은 임의 물에 잠기였고 잠기지 안이흐것이라도 물위로 바위숫판 조곰씩 보이는지라 이세에 옥남은 그 바회를 향하여 들어가서 투구 바회위서저 도달하느 지 못하느 지 그도 오히려 염려되거늘 더욱이 정남을 구하여 등에 두루쳐업고 나오기 서지도 능히 하리라 생각하였더라

원리에 옥남의 괴상으로 장정의 어른이라도 오히려 쥬져하느 일을 일기어린 으히로 이와갓치 담을 일을 헝코즈흙이 지괴신상에 가장 위험한 일이 잇슴을 아지 못하느 바이 안이로더 뇌몸위리흙은 조곰도 녀우에 두지 안이하고 용밍에 용밍을 다하여 죽기를 무릅쓰고 정남을 구하고저하니 이는 정남의 몸을 위하여 흙이 오쁘노 천모천과갓치 아느 경즈를 위하여 정남을 구치 못하면 뇌몸서저 의리가 안

이라고 결심하였더라

데이 심철회

옥남은 이와갓치 결심후후 저고리와 바지를 버셔더지고 밍연히 투구 바회를

향하여 드러간다 그러나 이날은 풍세 심할고로 물스결이 흥용하여 다만한몸으로 건너간 다 할지라도 물스결에 다리가 쓰러지겠거늘 옥남은 이를 조곰도 두렵지 아니한다

이석에 산성어리 갖은 물스결이 바람에 물너들어 오더니 쌓고 투구바위를 부딪치며 허여지는 물결은 바회위를 넘어 전면으로 흐러진다 이즈음에 물스기운에 쓸리어 쓰러질번한 정남은 이제야 비로소 금성철벽(金城鐵壁)이 임의위리홀디경에 일을 줄을 알고 창황망조하여 전후좌우를 도라다 본다

스면으로부터 함성은 일어나며 천만병으로 에워들어오는 군병은 그형세가 장 참담하여 이제야 이와 갖은 중위(重圍)를 벗고 살어나갈길이 전혀업서졌다 정남이 실석하여 울고저하나 울음도 나오지 안이하고 었지하면 이곳을 버서나리

오강며 생각하나 정남은 나히어릴분안이라 물에익숙지 못함으로 물이더드러 오기전에 초츠퉁디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하고 투구바회위로부터 내려오려홀즈음에 홀연더편으로부터 구원병의 소리 들어나니 눈을들어 잠간보미 이는 곳옥남이라 이곳을 향하여 드러오며 부르지 짐이더라 옥남은 목소리를 힘껏하여

「정남아 감안히 잇거라 느려오지말고 위티한다 큰일난다 내가가서 붙잡아 주마 가만히 잇거라」

옥남을 가장스모하는 정남이는 완연히 백만디군의 구원이나 었은드시 믿음의 스스로 안정되며 그 명령을 좃차 고요히 그 바회위에서 서잇스니 더정남은 일신의 안위(安危)가 전혀옥남의 몸에 달나 었더라

옥남은 조곰아흔 바회들을 짐검다리골나드디닷시 되티여 나아가며 투구바위에 점점갓가이 다스르니 이곳은 투구바위에서 상거가스오간에 지너지못하는 곳이라 그러나 그스이에 는 발을 붙칠바도업고 다만 곱품일어나는 푸른물스결만을 냉결일뿐이라 그아히는 다시 정남의 겁니잇는마음을 위로코저하여

「이이거정마라 관개치안타 내드러주마 가만이잇서」

하고 물스결이 잠간싸질씩씩을 기다려건너가고즈앗다라 조슈는 점점창일하여 옥남이가 한거름을 나아갈씩마다 처음에는 종아리에장기고 다음에는 무릎을잠기여 그바위잇는 중간에도 일이지못하여 슈심은발서 옥남의 가슴에 니르느니라 그중에도 한편으로는 큰과도가 음습하여 오고즈하며 그러홀과도가

가업더리도 풍랑중에서 서잇는 다리가 그디위를보존치못할것거날 홀물며 밍렬홀과도가잇슴이리오져아히는 곳야바위만초즈발을 붙치고 나아가는나보다 차라리허연을하여 건너가느니만갓지 못하리라 생각을 결단하고 몸을모호로 드러늘더니 가련홀두팔을 압헤놋코 물스을헛치며 나아가다 옥남은 비록십일세에 지나지못하는 아히로디 허변스름되얏고로 물에는 심히익더라

옥남은 이제 비로소 투구바위에 일으러다위잡고 괴여올나가려 홀즈음에 산과  
갓흔과도 한덩어리가 옥남의 몸을 덥혀부듯치미 옥남이가 바회를 붓들엇던손  
이다시 늦치여 한간동안이나 멀어졌다가 물스결이 지나간후에 다시허염할야  
간신이 그바회에 괴여올나서 몸을물받개일어셔니 아-가엽도다 즐々이흐르  
는피는 어련옥남의 발과다리를 드리엇더라

이제물녀오던 큰과도에 옥남의몸이 한가지로쓸녀 물속에빠져 보이지안아하  
는모양을보고 정남은 실식할앗다가 다시옥남이 바회우로 올라옴을보고 깃거  
할여

옥

「아이 아이 이걸엇더캐하니」  
「응 관계치안타 염녀마라」

할는두소년의 말소리는 별々설니인다

누

데이 심 팔 회

이덕에 정남의유모는 허변으로 츠즈나왔다가 이곳에일으러 홀연바회우에서  
사잇는 정남의모양과 정남을구호하고즈할여 허염할여 투구바회우에 다々른  
옥남의 모양을보더니 다만늘닐썸만안이라 허동지동할며 허변에서 이리저리  
왔다갔다할며 목이막히도록 소리를 다할여

「아이고 아이고 저를엇지할면조흔가 아이고도련님도 도々련님여괴는야

쌍

모도 업소 저것좀보오 누구든지와셔 저것좀아이고도련님」

유모는 이편을향할여불으며 저편을도라보아 부르지지며 밋친사람갓치 허안  
에서 날뛰고있다 그러나 녀즈의몸이라 능히쫓쳐들어가 구원할힘은업고 도라  
가셔 주인에게 고충즈할나 그동안이면 저두아희의목숨은 말셔구쳐못함을  
아는코로 그유모는 다만그곳을 썸나지못하고 소리를다할여 구원을청할썸이  
라

옥  
누

정남은 이제이바회우에 득달함도 요형호일로 아는코로 정남을다리고 할가  
지로 이물을 무스이건너 룩디애일을바를 쫓고저못한다 그러나 두사람이 이  
곳에잇셔서 할것구할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구하려오는사람보다 큰과  
도가 오히려 묻져이르러 두사람의목숨을 앓고저할지니 두손을마조잡고 안져  
셔 죽기를 기다리느니보다 일분이라도 급히빅반슈단을 다할여 이곳을버셔날  
도리를호리라하고 옥남은 급히등을 정남에게로향할며

「이이정남아 자-내등에업혀라 그리고 목은위로쳐키여들고 나를잔썸 붓드  
러라」

「응」

할며 정남은 옥남의등에 업히이니 옥남은 정남을 업고이러셔서 잠시도치체  
할지안아하고 발싹을다듬어셔 셔셔하나아간다

물은 임의 다섯치나 더욱 느릿느릿지라 옥남의 데일보는 임의 무릎을 잠기고 데이  
 보는 임의 가슴에 이른다 옥남은 바회를 더듬어서 덕되고 가는 덕도 물이 이와 같  
 흘진덕이 압호로는 팔연길이 넘도록 기본물이 잇스리라 하여 엿지향던지 더편  
 에잇는바위까지 허염을 하여 가고즈른다 그바위에 다다르면 그후는 안전향다  
 함은안이로덕 그중에 위험한곳이 이곳인고로 이곳만안전향게 지니여가면 다  
 른곳은 크게 근심될것은 업다 생각함이라 그러나 저아하는 다만 한사람으로  
 도 건너가기 어려움거늘 함을며 등에는 정남을지고 용히 이험한곳을 안전무  
 스하게 건너갈는지 다만 하늘에 축슈할뿐이라 정남은 발을써이고 몸을물에 띄  
 옴미 등우에 무거운짐을지고 잇는몸이 엿지감당하리오 그몸은 정남과한가지  
 로 물속에서 잠기엿더라 물에속란하고 괴골이장대흔 장정이라도 사람을 등  
 에지고 물에허염치는것이 가장 어려운일이어날 심일세소동으로 아모리 허염  
 을 잘흔다하기로 뇌몸의중량(重量)과 거의又흔몸을 등우에 올려놓코 허염치  
 는일은진실로 어려운중에 또 더욱 어려운일이라 그러나 그도슈면이편한할씩  
 이면 오히려홀도리가 잇슬이라 하려니와 탁랑로도(濁浪怒濤)가 물뿜듯하는이  
 스이에서 엿지 무스이 허염하여나 가기를 엿으리오  
 그러나 이씨이에 옥남은 다시물밖으로 얼굴을 뒤여 드는씩 정남은 두팔로 정  
 남의 목을더위잡엿더라 옥남은 간신이 몸을움작여 스오척동안을 허염철스이

에 큰놀결은 물너와셔 다시 두소년을 덤헿더라 유모는 허변에 펼쳐져서 안저  
 서 소리를지르며 구완혈사름을부르고 두아히가물스결에싸여 드러간후물우에  
 는 갈미기우리가 나라간다 세번지 옥남은 물밖으로 얼굴뒤여 놓더니 심히괴  
 로운모양으로 괴진흔몸을 가장하여 죽기를 한호고 허염치는덕 허중으로브터  
 일진맹풍이 일어나며 투구바회의 이비나되는 큰파도가 바름을쫓츠 밍호갓치  
 물너드러오더니 그근처에잇는바회는 모다침몰을 식이엿는덕 파도가바회에  
 부딪치는소리는 처참하야 사름으로하야 금 몸씨가사사로난다 이와갓흔물스  
 결에 두소년의 그림자는 회호리바람에 날녀어나가는 나무입식와갓치 참혹히  
 싸여드러갓더라

이십구회

그후는 다시 옥남의 얼굴이 물밖에서 나타나지안하오니 슬푸다가련흔 이형데 두  
 으희는 물속에 장스함을 면치못하엿더라  
 정남의 유모가 부르지지는소리에 이곳저곳으로부터 한사람두사람의 어부가모  
 여오는데 이씨는 임의 옥남과 정남의몸이 파도중으로 쓸녀드러간지 십여분  
 동안을 지니인후러라  
 여러어부들은 유모의 말을듯코 비로소크게놀쳐 일분이라도 밧비두으희의몸  
 을 구하고즈하야 한길두길 놓헿다 나져다하느 파도를무릅쓰고 모다물속으

로써 여드러간다  
 이어부등은 모다 옥남을 사랑하기 내의 아달갓치야 목포일경에서는 옥남으  
 로하야곰 어린희의 모법을삼았더니 이날옥남은 정남의 위티힘이 샅시간에  
 잇슴을보고 일표단괴로 용맹한구원명이되야 중위를헛치고 드러갓다가 드터  
 여 외로운성을 한가지로향앗스미 듯는여러사람들은 그아름다운마음에 더욱  
 감동되어 조괴등이 오히려 세가늦게와슴을 분히녀이여 무슨힘을다하던지 이  
 두소년의목숨을 구하고조른다  
 이와갓흔씨에 부정할하늘은 두희로하야곰 더욱고롱(苦痛)을 주고조흠인가  
 스방으로 혹은이몰녀드더니 비스방울은 여괴괴서 썩々떨러진다  
 희중에는 스나운바름에 것천물결은 천만장이나 높히구천에 소삿다가 다시나  
 저지는데 물결과물스결이 서로부딪치는소리는 산명곡응(山鳴谷應)하여 사람  
 으로하야곰 귀가어두울듯하디 물스결들은 투구바희우에서 어지러히날나다니  
 며 지저귀니 이도또흔 심상흔일이 안이러라  
 조곰잇더니 근촌에잇는 여러사람이 또일으러 면져사람과 한가지로 함녀하여  
 시체를찾는데 이윽하야 여러사람들은 두아희의 시체를 구하여 한번모래우에  
 뉘엿더라  
 슬흐다 아희들에자는다시 눈을감은모양을보건디 정남의 조코마흔팔은 지금

도 오히려 옥남에목을 세여안고있다  
 피초에 서로장성하날에는 반다사 한집에서 형데와갓치 지낙조고 어린마음  
 에 서로김피맹제하엿든 두아희는 장성하기를 기다리지못하고 이제상으로봇  
 터 후세에가기까지 서로안기여잇스니 그서로더 휘잡은손은 삼형에 서로써나  
 지안이후리로다  
 슬흐다 투구바희아래에 잇는물은 오늘날 가장 참혹흔일을 이곳에서일우엇스  
 니 옥남과 정남두아희는 이제서로 두손을마조잡고 황천에서 아름다운소래를  
 부르리로다  
 비록이세상에서 누리던인연은 적고박하다홀지라도 누구던지 이두아희의혼백  
 은 천국에 올라가잇슴을 의심치아니할지니 두아희의 고요이자는듯흔 얼골은  
 현저히 그일을말하듯갓갓도다 본건디 옥갓치희고 아름다운 형제두아희의 얼  
 골에는 조곰도 고통하듯빛이엿고 한번휘엿던것이 다시입을담은것갓하야갓  
 거하듯빛이 가득하니 이는의심업서 던지조연지쥬가 바야흐로 목숨이살어지  
 라하듯 두희에게 너희들은 본리한어머니비에서 나온형데간이라 일너쥬엇  
 슴이 분명하니 한혈육인줄을 아지못하고 목숨을 바리엿스면 엿지져와갓치  
 갓기운빛이 얼골에 나타나리오  
 던국을나간 동포두희는 반다시모친의 허물을 용서후리로다 비록두희는

모친의 죄로 인연하여 촘촘한 죽음을 일우었스나 단상에 올라가서 상대압해 공  
순히 팔을 집고 업덕이여 모친을 위하여 복을 빌 사람은 이 두희가 되리도다  
오허로 목포에서 칭찬하고 사랑하던 유남은 아모란 줄 모르고 나의 아오를 구하  
랴다가 인성의 가장 아름답고 비참한 죽음을 일우었도다 경조가 장중보육가  
치 사랑하던 정남을 구하려왔던 저의 형과 한가지로 모친의 손에는 도라오지안  
코 황천의 길을 지었스니 슬흐다 두희의 시체는 밭서 다시 소성할과망이 업서  
졌더라

데 삼 심 회

두희에 시례를 물우에 간저 노미 아씨에 급보를 듯고 달녀온 유남의 유모와  
정남의 유모는 두시례에 미달녀 방성홍공하며 몸부림을 하는디 그 두로파의  
슬허하는 모양은 사름으로 하여금 참아보지 못할라 여러 사름들은 두사름을  
위로하며 일변으로는 양신관으로 사름을 보녀어 급보를 덩욱 조부부에게 전케하  
고 일변으로는 짐볼을 준비하여 물을 도케하며 옥남과 정남의 시례를 더웁게하  
며 그곳의 스를 청하여 보이나 임의여러 시간을 지니었는고로 아모리하여도 효  
험이 업는지라 할일 업서 두희의 시체는 그곳에서 갖가운 옥남의 유모의 집으로  
위선운전하여 버기를 처하고 두희의 시례를 나라니 누엿더라  
이날 맛참 정옥 조는 심여리되는 엿더흐 촌가에 나아가서 잊지안이 하고 경조홀

노안져 잇더니 천만 뜻밖에 이 놀나온 괴별을 드르미 경조는 홀연 괴절하여 쌍에 업  
더 지는지라 주막 사름들은 크게 놀녀어 경조의 몸을 주무르며 얼굴에 찬물을 세언  
져 정신을 차리게 하며 한편으로는 정옥 조나 그곳으로 보녀었는디 그리할 즈음  
에 경조는 간신이 숨을 들녀어 정신을 차리고 눈을 겨우 떠스나 그 얼굴은 흙빛과  
갓치 검푸루게 질녀엿더라

그러나 경조의 얼굴에는 무산결단흔바가 잇는 것갓하야 눈에 한점 눈물도 썩  
우지안이 하고 간신이나 오는 목소리로

「어셔나를 그리로 다려다 주시오」

호며 목소리는 별々 썰녀이니 가엾도다 경조의 연약한 가슴은 밧서 파열(破裂)이  
되엿더라 그 눈에 한점 눈물이 업슴을 보건디 실로 눈물보다 더욱 심한 슬픔과 고통  
등을 당함이라

경조는 주막에서 나와 시례 잇는 집으로 향하여 을씨에 괴력업는 몸으로 여러  
사름에게 붓들녀어 비를 무릅쓰고 간신이 그곳에 다다를씨지 경조는 말하마  
디를 입밖에 녀지안이 한다 그곳에는 두희의 참혹한 죽음을 불상히 녀어 동  
리에 남녀로 소가 여러시모여 동정의 눈물을 금치 못하더니 이씨에 경조가 이르  
디 정남의 유모는 우던 얼굴로 마당으로 뛰어나려오며 경조의 옷자락을 밧잡고  
늦기여 통곡하며

「마……. 마……. 이일이」 엇전일이오닛……. 가……. 엇전일이야오」  
 하며 우는것을 경지는 손질하여 우지말나하고 지고는 옥남과 정남의시례 뒤여  
 노은방으로드러가미 그방안에는 여러동리사름과 옥남의유모가 있다가경지의  
 드러옴을보고 모다맞그로나아오닛다 다만옥남의유모만 홀로남아있다 그로파  
 는경지의드러온줄도모로고 실성흔사름갓치 방안흔구석에 고기를숙이고 죽  
 은드시안져있다

두리의벼리를 나란히버이고 자는드시누어있는 옥남과정남 두희의 시례는  
 몸은흰무명으로 덮혀잇는디 두희의아름다운얼굴은 이세상을찌나 려국에서  
 노니는지 비록죽은얼굴이라도 쾌락하고 만족흔빛이 얼굴에 나타나는것듯다  
 경지는 이얼굴을바라보고 벼기머리에몸을 펴쳐유저안지며 가슴으로쫓추소  
 사나오노은음을 츠마신을입에물어 억지로소리를 뇌이지안이하며

누

「아니죄가 이루어린지식에게 밋칠줄을……. 이일을 엇지하나 엇지하

하고 부르지며 경지는 두희의 시례를보듯고 업디여 통곡하기를 마지안이  
 한다 이씨에 옥남의유모는 비로소사름이 엽헤잇는줄알고 눈물드러바라보미  
 이곳경지라 홀연안광에무한흔 원망흔빛이 나타나며

「여보시오 마담네마담」

경지는 부르는소리에 얼굴을드느니라 로파는셀니는 목소리로

쌍

「여보시오글세 이일을 엇지하실터이오 나는마담얼굴도 자셰이압니다 마담  
 이々옥남이 천어머나가안이심니까 그씨갓나앗슬씨에 당신이이의를 죽이려  
 고하셧지요 옥남이가 그씨에죽을것을면하엿더니 이것좀보시오 당신이  
 씨문에이렇게죽엇습니다그려 이것을당신이 죽이신것이냐 다름업습니다  
 네마담 당신은웨우리……. 우리귀흔옥남이를 웨죽이셧소 인제는엇지하실테  
 야요」

예삼심일희

하며 로파는 경지를한편으로 원망하며 한편으로웃기며 울가를마지안이한다  
 경지는 소사나오는슬음을 억제치못하며

「여보 할멈하……. 할멈하는말이다 모도를은말이오만은……. 뇌……. 뇌이러지

는속도 좀싱각을하여주오 뇌죄가 리산갓흔고로 오날와서그벌을받는구려」  
 그러나 원흉흔마음이 가슴에가득흔옥남의유모는 더욱 경지를원망하는 모량  
 으로

「글세 여보 마담당신이 잘못하신사름으로 벌을받던지 죄를받던지 하는것  
 은 당연하러나와 나하고오……. 옥남이게야 무슴죄로 이벌을당할사름이잇습  
 닛가 나는 옥남이어서장성히서 잘되기를 날로바라고 죽슈를 하고지뇌더니  
 인제는저게죽엇스니 나는살아서무엇하닛가 찰아리나도싸러서 죽는게나잇지

누

옥

오 아이고 마님 이 일을 원통하여 었지 않나

경주는 고기를 솥이 고 한참을 두더니 길게 한술지으며  
「그말은 너가 할법에 개원망은 고스하고 썩지럼을 두더리도 너가 유구무언이  
오 그러나 너속도 조금씩 각히 주어야 안이호오 할법은 아달한아나 일어바렸  
거니와 나는 아달형대를 일었소그러」

이씨에 경주의 말과 경주의 형용과 경주의 경우를 보건뒤 목석이라도 동정의 슬  
음을 금치 못할지니 옥남의 유모는 경주의 말을 드르미 지금까지 너몸의 슬음만 성  
각하고 다른 사람의 더욱 비참한 생각은 조금도 생각할 여가 없더니 이제야 비로  
소 일시에 아달형대를 슈중고 혼을 만든 경주의 신상을 생각함에 홀연 경주를 위하  
야 처참한 모습을 의지 못하여 또 혼느기여 울며

「마님이 일을 었지 흠닛가」

경주는 목우인듯치 몸도 움작이지 안이호고 뒤답도 업시 정신을 일코 안졌는디  
그로과는 눈물애 어리운 얼골을 들며

「마님 만일이 모양이 될줄을 알아드면 진작에 옥남이다려 은휘하고 숨길것업  
시 모다 바른뒤로 말이나 하여 줄것을 그러지오 이으히가 마님을 정말 어머니  
인줄을 알았는지 퍼스 줄이겐기여서 그러하던지 었더케 당신이 라면 따르고 조  
와하느는지 모리겠지오 하로라도 당신을 못보오면 못견디서 하지도 한번우리

할미다려 그이가 정말 우리 어머니가 안이나오 못습니다 그러 그러치안라고  
하엿더니 었더케 걱정심을 하느는지 몰나오 그리도 그후까지도 어머니로만 알고  
잇는지 어찌개는 너가 하느는 양을 보지고 옥남이다려 네가 암만 그마님을 따르  
고 보고 싶어 하야도 몇칠안잇스면 서울로도 오를나 가실터이라고 하얏더니  
엇지우는지 몰나오 이아히성품이 여간일에는 눈물을 너지 안이호느디 그말을  
듯고는 었더케 슬어호느지요 그것을 보니까 었지잔잉하고 불상흔지 바로말  
을 하여 줄가 생각하얏습니다 어떤인줄이나 알게 바로말이나 하여 주엇드면도  
홀것을 저의 어머니인줄도 모르고 정남아기와 친형대인줄도 아지 못하고 죽은것  
이씨에 사뭇치게 불상합니다 다그려 여보시오 마님 당신은 왜 이아히다려 한마  
디 너가 너의 어머니라 말습을 안이호세습닛가 옥남이는 죽어서 아마원혼이  
되야서 정처업시 떠도라 다니겟스니 안이…… 불상하야 었지하나……」  
경주는 죽은사름갓치 안져잇서 뒤답할바를 아지 못하고 입살만 별々 썰니인다  
로과는 다시말을 계속하여

「나는 날마다 마님이 옥남이다려 바로말습을 하여 주실새 하야 기다리고잇섯  
논디 아모리 모습이 모지시기로 그러케 따르느으히의 그측은 혼마음을 조금  
이라도 생각을 하실지경이면 나중에는 무슴일이 성길지라도 이이게만 동정을  
하야 주실줄아라지오 그러케 미정하게 하실줄이아 었지알았습닛가 이할미가



바로말을하여도 할것지오만는 잘못하여 영감피쳐 아실디경이면 마님신상에 도치못할일이싱길가하야 마님하시느것만 기다리고잇셔더니 오날와셔는 이것저것다쓸티업시 되얏습니다그려 이이회는 정녕원혼이되야셔.....」

경조는 로파의말을드림이 뼈가육고 살이어이느듯할슬음에 목이메여 말을이르지못한다

### 데삼십이회

경조는 늦기여가며 말소리를간신이니여

「모도다 내잘못이요 할멈에게그말을 드으닛가 내모음은엇더타 말할슈업소 이럴줄을알앗드면 진작에 모조가셔로 알기나하게 할얏슬것을..... 내가그때에는모음에 귀신이씨엇든가 엇지면모음을 그다디독하게 먹엇던지..... 언젠가한번은 옥남이가 나다려 만일니가 우리어머니를 만나셔어머나라고말하여셔 도치못할일이잇슬것호호면 어머니라고하셔 안켓다협디다그려 그때에나는 그말을드고 엇지측은호고 불상호지 밋칠것호히셔 그당장에내가 너의어머니다말을하여줄가하다가 인히..... 나는 이세상에 웨나왔다가 조초로슬음이씨날스이업시 항상모음에 엇지못호고 잇던어린조식을 우연이맛나셔보고도셔로 진정을통치못호고 인호야형데가셔로 이끌고다시 도라오지못할곳으로셔나갓스니 할멈 할멈도내속을좀 생각하여주오」

로파는 다만눈물만흐니고 말을일으지못호는디 경조는다시 말을니인다

「니가 비록나은조식이라히도 나는저것에게 어미노릇 하나하여 본일이업고 할멈에게 잇셔셔지 신세를지우다가 저만큼장성할것을..... 하로에형데를다 죽였스니 모다이어미의죄로하야 철모로는조식들에게 벌악이밋치니 나는하느님의형벌을 과연셔다랏소 제죄로하야 제가벌을받는것은 엇더호형벌이라도 내가당하기를 조곰도심녀호지 안이호겟소만은 제에게는그벌이 오지안이호고 모다남의몸에밋치게호니 인제는 나는다시죄상첨죄는호겟소 다시는참을슈도업고 세세이내니력을 남편에게조복호고 승이라도되여셔 두조식의 후세발원이나 호겟소

경조는실로오늘을당하여는조곰이라도 숨기지안이호고 그남편에게로설호기로 결심호엿더라 그남편은추호만치도 경조의죄를 용셔치아니할지니 경조는그남편이나의죄를 용셔호지안이호겟도 모름이안이로디 오날에일으러 상대의천벌이사와갓치 참혹할것을셔닷고 이위에더욱죄짐을지고 숨기고조호는마음이전혀업셔지고 죽은아달의버키스머리에서 남편에게 조복호려호니 이는죽은아달에게티하야도 스죄호는방편이될줄노 알미오 또는 경조의눈에는 두아달의 죽은얼골이 어미를향하야 어셔빳비죄를 조복호라권고호고 이 세상을셔는것갓치현연이눈에보이고 귀에들니는것갓다

정옥조를 초저서 보니 옛던 사람은 정옥조가 중로에서 비를 맞나 멀리 가지 못하고 도라오는 것을 길에서 서로 만나 미쳐서 그 스실을 고하니 정옥조의 놀림은 었지다 말하리오 정옥조는 심중으로 가장 고통하기를 마지안이하며 한편으로는 병중에 있는 안희가 오작슬허하라 염녀하기를 마지안이하며 못송갓흔정신으로 그 사름과 한가지로 로파의 집에 다다르니 이새이 여러사름들은 정옥조의 락망상혼(落望喪魂) 혼얼골을보고 가엾고 측은한 마음에 은근히 눈물을 금치 못한다 정옥조가 이르는 것을 보더니 방안에 있던 로파는 마루로 나아가고 경조는 얼골도 들기력이 업시 고기를 속인뒤로 남편을 향하여 안져 있다

벼리를 나라이고 길게 잠든다 시누어 있는 두희의 얼골은 완연히 깔났갓하야 정옥조의 가슴을 어이도다 두희의 벼기머리에 안희와 한가지로 안져잇슴미 비록 사나희의 눈일지라도 완연히 루슈가 흐름을 세 닷지 못한다 정옥조는 손을 들어 정남의 이마를 만져 보더니

「아 이러케 벌서 절렁하니」  
길게 한숨자으며

「이 일은 참 천만의 외지……내가 갓가히 잇기나 하였더면……아! 인제는 새가 느졌는디 쓸데잇는 말인가」

경조는 말 업시 죽이고 잇는 몸이 바람에 불니는 나무 입서 갓치 썰고 일슬 썩이라

정옥조는 경조를 바라보며

「여보 넘어과히 상심하지마오 지금와서 아모리 슬허하면 소용잇소 다우리의 운슈가 불길하야서 그러할 것이지……」

데 삼십삼회

정옥조는 비창하야 항기를 마지아나하며

「정남이는 내아들이 냇가 었더호던지 오히려 상관이 업스나 내아들로하야 남의 지식서지 죽였스나 무엇이 라고 할말이 업구려 더만 콤 장성하고 더러듯영 리하고 민첩한 아히를 내아들로하야서 무참한 죽음을 할것을 보니……더아희 를 양육하던 로파의 마음이 었더호겟소 이것저것을 생각하니 실로 단장지정을 참기어렵소 이러할 줄을 알앗던들이 곳으로 지안이 할것을 아! 참……」

경조는 오히려 말이 업더니 압만나려다보고 잇던 얼골을 간신히 드는디 빙남갓 혼얼골에 혈석은 것치고 미간에는 무한한 고통이 현연이 보이며 눈에는 길히 결심흔 빛이 나타난다 그동안에 잠간 굶쳐든비가 다시 똑똑 떨어지는데 허변에 물너드러오는 물결은 언덕에 부딪쳐다가 다시 물너나아가는 소리는 완연히 황련의 소식을 전하는 것갓호며 사이로 들리는 물소리 의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비창흐음조를 전할시 홀연하날이 캄캄하져 지는디 방안은 더욱 캄캄하져 두희의 누어잇는 얼골은 점점 흰빛이 더하며 음침한 괴운은 실니에 음습하며 녀조

의 늦기여우는소리는 여원여모양야 실마리굿야 씩어지지안이흐다  
「여보시오영감」

항며 경조의부르는소리가 입밖게간신히나오는 목소리라 정옥조는 썬싱각을  
항노라고 밋쳐듯지를못항았는지 더답이업슴으로 경조는다시 거듭항여

「영감」

정옥조는 잠결에 누가세우는것긋치 잠짜늘너이는모양으로 안히를브라보는얼  
골이 경조의모음에는 가장업슴항야 경조는코끼를다시숙이며 모음을결단항여  
「나논인제 영감압해서 조복홀일이잇습니다」

「응」

항며 경조의 별안간이상환말에 요령을아지못항야 정옥조는 경조얼골을물그  
림이브라보고있다

「나는 죄만은……더더……려운계집이올시다 이옥남이라항는으히는 본리  
내조식이올시다」

정옥조는 눈이휘둥그렷도록늘너여  
「응」

항며 경조의얼골을 이옥하돌너보더니 도로혀불상항고 가엽시녀이여

「여보부인이 지금무엇이라고말항았소 마음을단단이먹고계시오아마지금삼

을썩지안이항았소 부인은원래 병중에 정남이를일코 너모설어항여셔 신경  
작용(神經作用)으로 아마정신이 흐트러져셔 그러항가보오 그러나 지금와  
셔암만슬허항면 쓸데잇는노릇이오 내몸에만 히가밋칠러이니 그저괴운을진  
정항시오」

「안이오 내가정신업시 환말이안이야오 밋도썩도업는말이 안이올시다 진정  
으로말슴이올시다 너죄를오날와셔 조복홀러이니 만일의심이나서거던이두  
으히의얼골을 조셔이……조셔이보시면 아시올이다 누구다려보라항여도형  
데로알수받게 업슬줄로싱각합니다」

정옥조는 경조의항는말이 조곰도정신이착란항여 나오는말이안이라 진정임을  
보고 말업시다만안히의얼골을 쳐여다볼뿐이라」

「내가 영감압해서 살아셔 이러케조복홀모음은 업섯습니다 너가조살이라도  
히셔 그리고죽여셔 영감씨 스죄를 홀지연딩 이몸이영감압해 보이지도못홀  
몸으로 못싱긴마음에 죽지를못항고 이런말슴을엇집니다 아모조룩조셔이들  
어주셔요……그후에는 내몸이엇더홀지경에 가드리도 조곰도살여항지안이  
항겅습니다 영감씨리산가흔은헤를저고 십여년동안을 피시던싱각을항면이  
마음도엇더항다 홀……실상인즉 너병도이차닭으로히셔 나고요 전일부터이  
말슴을영감께항고 마음을편안이홀가항엇더니 제몸으로는조곰도 상관업

스나 어린 지식의 사랑에 선을니고 또 명령감이 너모이 몸을위로하여 주시는  
 고로 그말씀을 행했다가 오죽이나 락심을 행오실야 하는 생각으로 입티 지숨기  
 고 지되었더니 오날은 상대의 별을 입었스니 이위에 죄를 더숨기고 있어서 죄  
 상첨죄는 할슈도 업고 또는 제 죄를 부복하는 것이 죽은 지식들에게 더하여도 조  
 혼되로 천도가 되겟습니다」

### 데삼십사회

정육조는 말근정신을 일은스름스치 다만무스하여 귀를기우리고 들을뿐이오  
 완연히흥으로 만드러노은이상스하여 한기의 슈염도 움작이는것이 업다 경조는  
 가슴에서 뛰노는과로움과 압품을어제하며

「나는영감께로 오기전에 한번남편을엇은일이 있습니다 내가셔올서 학교에  
 단일씨가 열여섯살적인티 그나히에 무슨철이잇겟슴닛가 내가몸을벗쳐잇는  
 우리학교교수에게속아서 엇더흐사름과 이상스려운관계를 미진후에 일후에  
 는 남편으로섬기조고 믿음에먹고잇섯지오……내 믿음은 본리부터학교를졸  
 업후에 부모의허락을받아가지고 식집을가려고 몸을정히 가지려하였더니  
 뜻밖에학교 선생님과몸술스나 회로하여서 그여히몸을더럽혔지요……그동안  
 에그럭저럭지니셔 열일곱살된후에 아회를비여셔 홀슈업시학교에는 단이지

못하게되고 식골우리아바지씨는 일절속이엿습니다 그후에 암만후회를하니  
 소용이잇슴닛가 그러다가 그사나회는점스니게 정이업서지고 그뿐안이라  
 그스나회는 나를속이고 예슈교회당에서 결혼식을거행하였는디 그것이정말  
 결혼식이안이라 그교당목사와 서로짜고서 나만속이노라고호일을 나는조곰  
 도아지못하고 정말부스가되었거나호고잇고잇섯더니 그게다거짓거이되었습  
 니다그려 실상인즉 그사름은본리 장가든식이잇는디 그동안은식골천정에  
 잇다가 그어름에올나와서 조그남편과갓치 식골로나려가시오 그러셔나니셔  
 가히실잘못가진되라고 결심하여서 아모도원망호지안이 하였습니 다만은 비  
 속에잇는 어린히를엇지 주쳐호면조홀는저모로고 남에게티면호면목도업  
 서서지각업는일이지요만은 죽으려고 통산강사로나아가셔 짜지려하다가 엇  
 던사름에게 구완을입어서 죽지안이하얏스나 그날밤에 그구호여준스름의집  
 으로가셔 나은지식이……육남이올시다 그후산후여증으로 병이나셔 나중에  
 는실성병이되야셔 그어린지식을 죽이려고사지호얏습니다 그말을요전에셔  
 히유모에게도 드르섯겟지요만은……그후로는 우리아버지께 근심을제치  
 여여러가지로약을쓴결과로 병은나앗스나 우리아버지께서는 나를넘오사랑  
 할실뿐안이라 이후에내가 남의집에식집을갈씩에 지식이잇다호면 방히가된  
 다호셔셔 남다려는물론말씀호실리가 업거니와 나다려도그아히는 받셔죽엇

다 고 속이셨습니까 다 그 려 님이 공주집으로도라간후에는 일평생을 식집안이 가  
 라고 결심하셨더니 우리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드르시고 었지나락 담을 할 시고 심  
 려를 할 시는 지 지식 마음에 그 저잇슬슈가 업서서 부친의 명령으로 눈을 짝 감고  
 식집을 가게 다고 말씀하셨습이다 그러니 나는 전일 님히 형실을 남편에게 말할 후  
 에 남편되는 사람이 관계치안타면 식집을 가겠노라 하였스나 아바지께서  
 하도 조식 다려 비시는 말로 하시니 조식 되야서 었지 부모의 말씀을 안 들들 슈  
 가 잇습닛가 할 일 업스닛가 님 몸은 죽은 몸으로 자 처하고 늙은 부친의 마음이나  
 편안이 할 사 생각 하여 그 썩 공주 사서는 김승지 님의 신세와 주선으로 더러운  
 죄를 숨기고 이리로 식집을 왔섯습니까 다만 항상 마음은 편 할 날이 업섯습니까  
 하며 경주는 더욱 말을 하고 조하나 가슴이 막히여 말을 일우지 못하며 정옥주는 목  
 목히 안져 다 가 얼골을 듣는다

대삼십오회

정옥주의 마음은 전혀 파열(破裂)하였도다 강인히 입을 열어  
 「전에 었다 하든 남편은 누구라 하든 말이요」

경주는 숙엿든 얼골을 들지 못하며

「네 다른 사람이 안이라 령감씩셔도 아시지요 만은 의원에서 병습이라 하든 사  
 림이 올시다 그 때는 그 사람이 아주 서울서의 학교에 학도로 단일해야요」

「응 서병습이야」

크게 흘숨 짓는다  
 경주는 다시 남편의 얼골을 바라보며

「넌 그 후에 서병삼과 만나기는 요전에 송도서 정남이가 병들어서 알을 썩에  
 그 후로는 처음 보았고 또 그는 그 려게 유명한 의원이 되어 잇는 줄도 몰랐습다……  
 인제야 조공인들 은휘하고 말씀 할 리가 잇겟습니까 바른디로 었 좁는 말씀이 올  
 시다 그 썩에 나를 서병삼이 가 다른 방으로 다리고 간 것도 정남의 병으로 하여  
 할 것이 안이라 실상은 이 전 관계로 하여 나 다려 말을 하느니 서병삼이 는 지금  
 도 전 일과 갓치 령독 할 사람이야요 조기의 마누라가 작년에 죽었느니 님 가지금  
 홀아비로 잇스나 이제 는 나와 한 가지로 백년을 누리 는 것이 었더냐 하 면서 협  
 박이 디 단히요 만일 님 말을 듣지 안이 하면 그 말을 그 디의 남편되는 정혈환에  
 게 말할 겠노라 합니다 다 그 려 나는 오히려 다 형히 녀여서 나는 입디 쓰지 마음이 약  
 하여서 남편에게 말씀을 못 할 앓더니 만일 남이 님 디 말을 하여 주면 그런다

형이 업을 뜻하여서 아모릿케든지 모름티로 할라 할앗더니 인히말씀을 할지 안  
이하고 그티로 갖습니다 그려

정욱조는 다시 한숨만 지을뿐이오 경조는 혼조 말갓치  
「아이고 그덕 서명삼이가 령감씩그말씀을 할앗드면 지금와서 정남이가 이모양  
은되지안이 할앗을것을…… 지금와서 이런말씀을……」

하며 남편의얼굴을 눈으로는 남편에게 향하여 간곡한정이괴식에 나타난다

「벌셔라도 나는이말씀을 할자々 할면셔도 지금서지못할것은 모다정남이불  
상한모음과 욱남이싱각으로 할야서 말씀을 못할앗습니다 이런더러운게집의  
말씀을 드르시넷가 령감의덩항신귀를 더럽혀노히겄슬듯할오나 이죽은정남  
이들보아셔님모음속을 다말씀할겄습니다 단지 령감을 스모하는모음을……」  
하며 어나듯눈에서 눈물이 뚝뚝흐른다

「엇쥬려하는말씀은 다른말이안이이라 실상마암으로는 다시남에게 식집가지  
안이 할자 할엇습더니…… 가령다시남에게 몸을 허락할다 할기로 받셔임의업셔  
진이정이다시 소사나올리치도업고 이정이업는모양으로 남편되는사름을 섬  
기면 도로허죄가 될듯할앗습더니 령감의두터은사랑에 업셔젇던이정이 다시  
씩이나셔 처음에는 령감을 단지 한낫남편으로만 섬기다가 나중에진정으  
로 영감을 스모하는모음이니셔 이제상에는 령감갓호신니는 업는갓갓치 알고

잇섯습니다 이죽은두조식을 압해다누이고 무슴마음으로 령감씩인들 어엇  
부게보이고조 할겄습닛가 지금서지는 거짓말도만이하고 죄상도만은게집이  
을시다만은 오날말씀은 티설하나섯기지안이흔 진정말씀이을시다 령감씩셔  
인들 지금와셔야 이런더러운게집에게 다시전과갓흔 기흔사랑을쥬실리가만  
무항시거니와 아마한가지로티할여 말씀하시기도 오히려 더럽다하시려니와  
………그렇치만……… 령감」

하며 목이메어 울음을짓는다

「니몸은 비록더럽고 더러우나 이모암은 령감씩이한이정이 조금도변홀리는  
업습니다 욱테(肉體)는 아모릿케되더리도 영감에게티흔사랑은 조금도변치  
안이하고 언데서지던지 영감씩향할야 잇슬터이니 아모조록 영감씩셔도 몸  
을닉보중할오셔 게시기를바라오며 이몸은 령감이 바리셔々 엇더흔비참할  
지경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영감을 원망하지는안이 할터이오니 닉의모암이셔  
러할줄로 싱각할여주시면 삼성에원이업겄습니다」

데 삼십륙회

정욱조는 경조의말을듣기를 맞치리 흉중에 무한하고등을춤으며 가장엄숙한얼  
골로 경조의얼굴을바라보며

「부인이 지금에 회파하는말을들으니 만일그말이 사실과갓출진티 부인의지

금즈북하는 말이 되단 잘 생각할 말이오 인제 이르러서는 나는 아조이 세상에서  
 는 절망(絶望)한 사람이 되얏소 나는 그 티를 숨겨 죽어 죽어 도 더욱 결박한 숨겨 죽어  
 알고 잇섯더니 이와갓치 숨겨 잇는 허물이 잇섯는 줄이야 꿈에도 잊지 생각할  
 겠소 나의 가슴은 이제 터지는 것갓소……한번 터가 안히 틀었지 안이 할기로 결  
 심하였다가 절기를 못치고 다시 부인을 마져 온 것이 내 평생의 잘못이오 나는 본  
 리 벗티 허물이라 하는 것은 조금도 용서치 안이 함은 부인도 아 마져서 하 알듯  
 하거니와 내가 오달 그 티의 몸에 이렇듯 추루한 험절이 잇는 줄을 알고야 잊지 용  
 서할 수가 잇소 십여년을 동락하던 안히 틀어 버린 사람으로 그 티를 불쌍이도 알겠  
 지만은 일반도 리상으로 던지 또는 정가의 집안 명예로 말하던지 결단코 그 티의  
 죄과를 용서할 수가 업소 정가의 집이 이일로 하여 크게 명예가 손상하였스니 나  
 는 정남이 죽음보다 집안을 위하여 더욱 슬픈 눈물을 금하기 어렵소」

경조는 다만 얼골을 가리우고 누기여가며 울고 잇슬 따름이라  
 「그러나 정남이가 비록 지금 살았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이러하리라 악이 잇는 사  
 람의 소심으로는 도더히 우리 집안에 향화를 받들 수가 업는 터이니 데일신상으  
 로 말하며 더 세상으로 가서 잇는 곳이기도 하 나을는지 모로겠소 여보부인 그  
 티는 오날부터 정욱조의 안히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오」  
 경조는 다시 소리쳐 누기며 통곡한다

「나는 여러 동안을 그 티와 한가지로 지낼 터에 나에게 천절충든 맘은 너가 평  
 성을 잇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 동안에 지니 인일은 일장춘몽에 지니지 못하는 것  
 이니 나는 가령의 이제 상즈미도 이위경험하여 보았스며 이리저리 생각하면  
 너가 갑히 생각 못하면 연고로 이러하리라 당할 것이니 지금 이르러 그 티도 원망  
 할지 안소 나는 인제와서는 아모것도 업고 무밧동스흔 사람이 되었소 저산도 업  
 고 안히도 업고 희망도 업고 명예도 업고 단지 남은 것은 침々 철야에 심산궁곡  
 에 드러안져 잇는 절망한 일기 동물이 되었슬 따름이오」

경조는 다시 세번 통곡한다  
 정욱조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여보시오 지금도 말하바이니와 그 티와 나와 인연은 오날까지로 아시오 우리  
 선조사당에 덕을 여셔라도 그 티를 리혼치 안이 치 못할 터이니 그런 줄 아시오」  
 경조는 간신이 목소리를 터어

「네」  
 「아……나는 그 티를 일코는 절망(絶望)이라 하는 벗을 엿스니 이 정욱조는 절  
 망이라 하는 벗과 한가지로 디하에 싸지라도 한가지로 가지 안이 치 못하겠구  
 려」  
 경조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어지듯 하얏어

「앗가도 말씀하셨습니까 다만은 이디경되야셔 리혼당할줄은 미리짐작한일이  
을시다만은 지금영감말씀이 절망을향앗다하시니 왜그토록 말씀을향심잇가  
그말씀을드르닛가 이마암은엇더라 할슈업습니다 이몸이 마지막으로영감  
씩원하는말씀이잇스오니 다른말씀이안이라 다키의죄로향여 영감까지이세상  
에서 몸을바린몸으로향신다니 아모쪼록 그런마음은잡슈시지말으시고 아모  
쪼록 천금갓흔몸을 보중향오셔 계시기나나는 원향코바릅니다」

「눈물을흘니고 충정을원코향는 경조의말에 정옥조는 마음이움작인비잇  
는지 창연흔괴식으로 눈을감는다 정옥조는이우향여 눈을쓰며

「조괴의장리를 저도모르는것이오 그러나 그티의충고향는말씀은 어디까지  
던지 잊지안이향고 잇겟소만은 이후일이야 엇더케될는지알슈잇소 그러나  
제일급흔일은 저어린것을 장스나지니여 쥬어야향겟는디 처음에는 다키성각  
에 우리집선영하에 정남이를 무더줄가향엿더니 지금부인의즈복향는말을드  
르니 차마정리에는 박절향지만은 선산하에는 갓다못을수가업고」

경조는 누기눈목소리로

「영감 잠간좀 니말씀들어주시오 나는죄가 만스무셔이지오만은 정남이야무  
슨죄가잇슴잇가……그저정남이향는 불상이역기셔 선산발치에나 못어쥬  
시기를바릅니다」

정옥조는 엄연히

「응정남이는 백々무죄하지 그러치만은 정남의몸은 더러운모친의 피를받  
앗스니 선산에엇지 입장할슈가잇소 조상까지 더럽히고저향는 마음은업소  
나는결코 그청은들을슈업소」

경조는 엇지할줄몰으고 근력업시 고기만꼭숙구린다

네 삼십칠회

정옥조는 다시말한다

「정남이를 이근처에장스저니일슈밭개업소 그러나옥남이의신례는 그아비되  
는 서병삼에게 특별향여쥬는것이 내마음에는 온당할줄로아오 그티의마음  
에도 그리향는것이 을은줄로아는것갓흐면 내가꼭키성군 서병삼의 집으로  
던보를씩우겟소 지금도아마 키성집에잇는모양이니……그리고 공쥬에게신  
부인의부친씩로 이일을던보로 통지히야향겟소」

경조는 묵묵히안져잇더니 간신이얼골을들며

「우리아바지씩는 던보를그만두셔요 별안간에 그말을듯고 놀내여서 괴절을  
향면 엇지향닛가 내가편지로 조셔히말씀을히셔 붓치겟습니다」

「그러면나도 그편지속에」두어조썩셔너야향겟소 리혼한다말도 통괴히  
야지……」



이날밤에 정옥조와 리경조는 어린 유희의 시례를 위하야 그 로파의 집에서 달야  
 하얏스며 장식은 두 유희를 한가지로 장스코지하엿더라  
 리성군에 유희는 병삼에게는 밋셔연보를 띄우고 또는 서울정옥조의 본제로던  
 보하얏스며 공쥬리과장에게 경조와 리훈하는 리유를 간단히 고티별하얏스며 경조  
 는 지금에 일으려는 부친에게 숨기지 못할 경우에 일으리려고로 부친의 상심과  
 비회호일을 생각안이 흠이 안이로되 정남과 옥남 두 아히가 오늘에 일으리 참혹한  
 죽음을 일우엇스며 동시에 조초지종의 사실을 하나도 싸이지 안이 하고 모도 고티  
 록하야 그 부친에게 고티별하얏더라  
 그것흐날저녁에 일으러 한 사람의 신스가 그 로파의 집을 초지왔스니 이 사람은  
 죽셔 병삼이라 그 연보에 놀니여 망야 하리 흠이러라 로파는 셔병삼을 인도하야  
 두 아히의 버키스머리에 안치니 셔병삼은 두 아히의 죽은 얼굴을 이윽히 드러다보  
 며 홀연 처창호고 식이 얼굴에 나타난다  
 이때에 정옥조는 양신관으로 가서 잇고 이곳에는 경조와 로파 두 사람이 시례를 직  
 히고 잇는디 셔병삼은 옥남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길게 혼숨지으며 다시 경  
 조의 얼굴을 바라본다

「나는 지금이야 비로소 십년 전 죄를 뉘우치습니다 회기 혼아비를 향하야셔 이  
 아히의 리력과 엇지하야셔 죽은 것인지 조셔히 들녀 주시오」

경조는 엄연히 눈물을 썩스며

「이 아히 죽음으로 하야셔 당신이 전의 죄악을 뉘우치셨다 하니 만일 그 말씀이 정  
 말이면 이 죽은 조식이라도 아원이 업셔 져슬 듯 하오며 넋마암에 뒤단이 반갑  
 습니다 이 아히의 조초지종은 나도 조셔이 아지 못하코 이곳에 와서 비로소 조  
 할미에게 드렸습니다」

하며 경조는 옥남의 아름다온 성질과 정남을 구하려 하다가 인하 여용밍스려 온 죽  
 엄을 일운 리악이를 혼다

셔병삼은 듯기를 다 하코 한숨지으며

「여보시오 부인 나는 지금 죽은 조식의 신례압해서 넋가 사죄를 혼들 무슨 효험  
 이 잇겟소만은 넋가 이러케 사죄를 하오니 부인이 밋으시고 넋죄를 용셔하 여쥬  
 시오 이전에 이셔 병삼이는 참잔혹도 하코 못싱긴 놀이 왔습니다 처음부터 부  
 인과 한가지로 아름다온 가정을 지녔드면 오늘와셔 이 옥남이로 하야금 적막  
 혼초중에서 무정한 세월을 보되다가 비참한 죽음을 하얏슬리가 만무한 것을...  
 아..... 부인 넋죄를 용셔하시오」

경조는 셔병삼의 말을 드르미 여러가지 생각이 혼중에 그득하되

「나는 결단코 당신을 원망하지 안이 합니다 용셔니 무엇이니 할 것도 업습니다  
 그러나 미음을 곳치셨다니 그 제제일 반가운 말씀이오」

그러나 정협관부인께서는.....  
하며 서병삼은 무슴말을 하라 하는 것을 경조가 못져  
「나는 언제 정협관의 부인은 안이올시다」  
서병삼은 껌짜늘 너이는 모양으로

「그러면 전스가 탄로되야서 정협관이 리혼을 하얏단 말이오」  
「네」

「그러서 정협관이 아모러기로 부인에게 디히서 그러케 무정흔 짓을 혼단 말이  
오 너가 부인 압헤서는 인정이니 무엇이냐 말할 즈적은 업스나 나로 인연하야  
부인이 오늘이 결과를 당하는 것이니 너가 엇지 부인을 위히서 힘을 안이 쓸 슈잇  
소 니가 정협관의 믿음 돌나도록 운동을 하겟소」

데 삼심 팔회

경조는 이옥도 록 말이 업더니 문득 얼굴을 드러 서병삼을 바라보며

「그천절하심 말씀은 대단이 곱압습니다 나는 당초에 당신이 도와 주시는 힘을  
입고 자바라보는 사람이 안이올시다 가스 지금 당신이 아모리 힘을 다하야서 나  
를 도와 주고 하사 더리도 한번 결심하 믿음 그다지 용이하게 다시 도로 길정  
협관이 안이올시다 그런 잇가 그런 무익흔 걱정은 그만두시는 것이 오히려도  
흘끗하오이다」

하며 두말 업시 되각하니 서병삼은 적이 노여운마암이 일어나며 경조의 얼굴을  
바라본다

「당신이 아마 지금도 니 말을 의심하시고 하시니 말씀이 안이신가요 나는 조금  
치라도 죄를 속출슈가 잇슬가 하고 당신의 이번 일을 도와들이 마하는 일인디  
그러케 부인이 말씀을 하시면 종사도 아서 병삼의 전일 죄상을 용서치 못하겟  
다는 말씀이 안인가요」

「안이요 그러흔 말씀은 안이야요 나와 당신스이에 지금히서는 은혜도 업고  
원망도 업는 아모상관 업는 남々끼리가 안임닛가 남이 남을 도와 주려 하디  
한 사람이 도음을 받지 안이 하겟다 하면 그 썩이지 당신으로 말씀하시 드리도  
여지로 말씀하실 것은 안이올시다 그러하닛가 이후라도 너일신상에 상관되  
는 일은 아모관계 마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병삼은 가장 무료하여

「그러면 다시 니가 당신을 위하야 도와드리겟다 는 말씀은 안이하리다 그러나  
나와 당신스이에 전일 관계를 정협관에게 말씀하야서 죄는 전히 니게 잇고 당  
신의 몸에는 조금도 잇지 안이 하것을 설명하려 하니 그것까지 부인이 하지 말  
나 하사 지는 아니 흘러이 지오 나는 다만 일기인성각으로 정협관의 믿음을 다  
시한번 두다려 볼성각이 지오」

경조는 고기를 숙이고 다만묵후하여 뒤답이 없다  
 이곳은 양신관이니 서로향하여 말하느사름은 정옥조와 서병삼이러라  
 서병삼은 격양한마음으로 침착한덕도를 가지고잇는 정옥조를향하여  
 「그러면 엿다향던지 영감부인을 리혼하겠다하시느 말씀이오  
 정옥조는고요이

「나는이리혼문제에 더하여는 우리집안일이닛가 외인이종간에들어셔 가부  
 를말할것이안이라고 생각하오 저의부부가 서로동의하여 리혼을향던지  
 리혼을안이하던지 결단코 타인에게말할일이안이나 그만한리유를가지고는  
 뇌의한번 결단한마음을 도로키일슈업소」

「네그것은나역시 다만영감을 권고하느디 지너지못하느일이오 최후의결단  
 은 영감의마음 한아에잇는 일이올시다그러 그러나 영감이 만일 뇌의주장  
 하느마음티로만 하실것갓하면 영감부인되시느는 과연너모 불상치가안습닛  
 가 본리로말습하면 그부인에게도 다소간죄책이 업다한슈는 업스나 그죄라  
 하느것은 다만영감에게전일죄상을 숨기고말하지 안이한것뿐이오 또느  
 기는 전일의지은죄를 회과하엿스나 세상일이 여의하지못하여 박부득이호  
 스정으로 그를근심하며 두려워하면서 항상 저복하고저 하느마음을 두었스  
 니 그것을볼지경이면 지금와서 영감이그것을죄라하여서 리혼저지에밋치는

것은 넘어과하신일이올시다 그부인은 본리부터 품행이단정치못하고 허탕  
 방탕하여 저의음행을속이고 식집을온것이안이라 다만두번저 식집가는것  
 을초혼인데할뿐이오 그도그부인의집으로 초혼이라 일카른것이안이라 더욱  
 이 부인에게벌나인죄는 모다나의죄로하여 원인은안이올시다 실상말하면 부인  
 은다만 내죄에부속물이되어 잇습뿐이오 원범은안이올시다 만일 동양풍속  
 으로 딸녀는불경이부라하느 습관으로말습하면 부인에게도 죄가업다할슈업  
 게지오만은 영감도 고등교육을받으신량반으로 설마남의스정을 그다지롱치  
 못하실리는업겠지요 가령이일이너너히 부인을리혼할증거가될는지는 모르  
 겠습니다 그러나 여러행동을두고 죄를뒤웃치고 또느정씨문중에 주부가  
 되야셔 봉제스점빈기도하얏고 정씨의혈속까지 밧앗습뿐안이라 더구나오늘  
 날이와초혼 불행한일을맞았습씨에 설상가상으로 리혼까지하신다느것은진  
 정참아하지못할일이라도 하겠고 그다지할리유도 확실히잇다 할슈업습니다  
 이서병삼이 갓흔전일에 링담참혹한력을가지고 잇던사름도 오늘이르러서  
 는비상한감동을받아서 인정이라하느것과 측은이라하느것을 다소간 써다릿  
 습니다.....실로 부인일에더하여는 뇌마음에도 가련한마음을 의의지못  
 할것넉디 영감으로말습하면 가장사랑하시던 영부인에게더하여서 이와갓치  
 극단에가느처지를 하고저하시느일에더하여는 나느디단이 유감으로생각하

는바올시다. 진정으로 자신(自身)에 죄가 있어서 그 결과로 벌을 받는 것은 슈원 슈구를 못하게 짓오만은 타인의 죄로 인하여 제 마음을 번뇌(煩惱)하는 것 같치 이 세상에 박명(薄命)한 사람은 업슬러이니 이와 같이 박명(薄命)한 부인을 불상히 여 이는 것이 「스나 회된 사람에 의협심(義俠心)이라 할 듯 한 것이다……만일 영감도 부인을 불상이 생각하시는 것이 제실 것 같으면 이러 할 불행한 디경을 만나 신부 인에게 티 할야서 조곰이라도 저비심(慈悲心)을 쓰시는 것이 한 사람다운 덕 이라 할 것 소이다」

정옥조는 고이히 안져 두기를 다 하고 서서히 얼굴을 들며

「서박스는 지금 와서 죄를 뉘 옷쳤노라 말씀하시오 또 나에게 충고하는 말씀 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리경조에게 티 할 서박스의 생각과 나의 보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그 주장을 숨어서 하는 말씀이 도저히 나는 금복할 수가 업소이다 그 뿐 아니라 나는 싸로한 주의가 있어서 흥상이 주의 (主義)를 좇아서 몸의 진퇴를 숨는 것으로 엇지 보면 나의 하는 말이 티 단이 무정도 하고 저비 할 마음도 업는 것 같 처보일 지도 모로 겹치오 그러치만은 나의 깊은 마음은 오히려 나의 안히 되었던 리경조가 저서야 알고 잇슬 듯 한 오」

### 데 삼심 구회

정옥조는 다시 얼굴에 위엄한 모양이 나타나며

「그런디 지금 말씀하신바 저비심이니 인정이니 하시지만은 원리로나 는 죄악 과 인정이라 하는 것에 티 할야는 인정이나 의 주문이 잇스니 지금 나의 마음을 저 서야 아시도록 간단이 설명하여 드리올리다 너역덕의 상(德義上)에 관하여 서 인스문데(人事問題)에 티 할야 그 심판자(審判者)의 디위에 있어서 평론할 스름 은 반다시 저의 과거와 현재에 가장 청결(淸潔)한 녀스를 가지고 잇는 사람이 안이면 도로 허볼가 할 줄로 나는 인정하오 만일 그 이외의 사람이 그 디위에 처 하고자 할라면 이는 일운바 속담의 말로 똥뭇은기가 거뭇은기를 나물안다는 말 과 같으니 엇지 시비곡직을 말할 슈잇소 티 단이 미안한 말씀 갖지만은 서박스의 몸으로는 능히 는의 처치하는 일을 비평할 자격이 업는 줄로 아오……자겨유무 는 처치물론하고 불상이 녀인 다 하는 문제로 말함 오리다 죄악에 티 할야 불 상이 녀인 다 하는 말이 불상이 녀이여 용서하는 사람도 임의 그와 같은 죄악을 범 할야던 일이 잇던지 그것치 안이 할면 자기도 만일 그와 같은 경우를 당하면 그 죄 를 범할 슈박게 업다 하는 마음이 잇슴으로 하여서 자연하능의 죄악에 티 할야도 동정을 표하고 측은히 아는 것이니 측은지심(惻隱之心)은 가위 사람의 아름다 운 덕이라고 말할 슈잇스니 그러는 죄악에 티 할야 측은지심을 쓸것은 결코 아 름다운 덕이라 일카를 슈업소 니 생각으로 말을 할면 죄악에 티 할야 동정을 표하 는 것도 한 죄악이라 말할 듯 한 오」

서병삼은 정육조의 말이 고집을 불통하고 다만 그의 주권만 가지고 침착하는 도리가 업슴을 보고 가장 분히 녀이여 정육조의 얼굴을 물그림이 처다 보며 네 영감의 심스는 가히 알겠소 그러듯 교주교술(膠柱鼓瑟)로 어디서 지던지 너의 고집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누가 아모리 허가 들도록 말씀하기로 조금도 효험은 업겟소이다 그리고 부인으로 말씀하면 이렇듯 편벽된 주의를 가지신 남편과 우리도록 부부간으로 사난이보다 일즉이 인연을 쓴코 서로 하여 지는 편이 도로혀 그 부인에게 티가야서는 행복이 될는지도 알슈업소……대례 그 부인이기에 오늘날까지라도 영감의 부인으로 영감은 혼혈한 마음을 가지신 남편의 마음을 만족케 하였지 만일 다른 부인이더면 영감은 혼혈한 마음을 맛취여 하로라도 원만치 지치지 못하고 밭서리 혼선고(離婚宣告)를 당하였스리라 전일의 죄상은 엇더하던지간에 저런 부인 처결점업는 부인은 아마이 세상에는 드물러을시다 제게를 물론하고 다 소간허물업는 녀자가 어디잇스며 허물업는 사람이 어디잇소 이 일에 티가야서 다시는 말씀하지안여하겠소 말씀하여야 영감이 들을리도 업거니와 한갓진담루설에 지치지 못하닛가 말을 다시 할리업소」

서병삼은 분연히 안져 슈염만가지고 쓰다듬더니 홀연 무슴싱각을 하였는지 「부인에게 티할 말씀은 다시 안이하겠소이다 만은 나의 죽은 지식의 장소지니 일일에 티가야 말씀할일이잇소이다 네는 도그말씀을 지금하려고 하든치이오」

이와갓치 두사람은 그이흐날 두아희의 장소지니 일것을 상의후에 서병삼은 그근쳐엇더흔 주막에서 머무를다라

서병삼은 정육조의 마암을 도리치고자하여 만단으로 권유하다가 인하여 성공치 못하고 분연히 그의 처소로 돌아온후에 흥중에 한낱 서로은싱각이 일어난다 금일에야 비로소 정육조에게 티가야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다시 정육조와 정육조의 인연을 잇게하야 미진한 행복을 연구히 누리게하고 원통하였더니 그와갓치 후의는싱각지안이하고 도로혀 비척을 밧임이 격양할정과 분할마암이 일어날뿐 아니라 더욱이 정육조의 고집을 결심을 분의 정육조의 운명은 드티여 리혼을 면치 못하리니 전일을싱각하드리도 정육조를 위하여 동정을 표할것이오 그의 정육조에게 격동된 일로 인하여 찰하리 정육조를 뇌뎌에 의탁하야 이후에 행복을 누리게 하리라는싱각이 싱하엿더라

대흥산성에서 우연이 정육조를 만났을썬에 서병삼의 야심은 지금에 이르러는 전혀 저와갓치 차더니 이제 정육조와 언정할결과로 그 마암이다시 불췌갓치 이려난다

서병삼은 정육조가 파연 나의 뜻을 불통하느니 오작 그의 향을 물어 보지안이하면 못되리라 하여 두아희의 장식을 맛친후 정육조를 달닉이 고쳐하야 조용한 회회일이 으기를 고티흔다

그잇든날 오후에 두기의 조고마흔관이 나가기로 그로과의 집을 떠나오는데 촌  
 중에 거성호는 늪너로소가 이날은 모다일을 슈이고 슨흔괴석이 일골에 보이며 북  
 각히관뒤에 좃츠간다 이날은 철업논아히들씨지라도 큰소리와 웃는 빛이 업고 산  
 천씨지라도 두의히를위하야 죠상하는듯하야 촌가에는 한집에도 저녁연기가 올  
 나오는곳이 업더라 이와갓치 여러사람의 마암을 상케하는 두소년의 신데는 어난  
 듯이 세상을 하직하코 푸른소나무아리 청정흔쌍아리에 형대가역기를나라니하  
 고 길게한가히잠들엇도다 아오와한가지로 디하에 못치인옥남의 마암은 아마편  
 은홀것이오 정남은 이세상의 명예와 죄악을 쓸결에 못치바리고 영원이셔나서  
 또논 정씨의 선영을 떠나서 한갓정다운형과 한가지로 버기를갓치하코 누엇슴  
 을 깃거히성각하리로다 현세에서 사로잡힌 그모친은 날로 탄식하코 슬음으로  
 세월을 보니 일지라도 그아들 두아히는 길게은락흔싸를엇음을 절기리로다

데사심회

옥남과 정남의 장식을 맞친후 그잇든날 서병삼은 양신관에 일러 경즈에게 면  
 회하기를 청하나 경즈는 사절하코 드디여보지안이 하엿더라  
 이늘경즈는 정남의 유모와 혼가지로 두아히산소압해 일러 눈물을 뿌리여 흥  
 곡하야 츄마그곳을 떠는지 못하다가 도라오는길에는 옥남의 유모집에 들녀  
 또흔눈물을 금치 못하얏더라

경즈는 그날형대의 못치여잇는곳을 항상가서잇서서 조곰도 떠는고즈하는마음  
 이업스며 스름의이목만업스면 하로도멧츠레식을 그산소에 올라가련만은 이목  
 이번다하야 그도마음되로 능치못하코 다만즈의 방안에 홀노안져서 슬흔마  
 음과 원통한마음으로 탄식으로날을보이니 살아잇는것이 도로혀죽어모로는  
 것보다더욱 심하도다

남편의 장리를 염녀하야 부친 리과장은 이과별을 들으면 엿더케 탄식하시며 슨  
 허하야 이우에다시 무슴비참흔과별이 잇슬는지모로리로다

옥남과 정남 두아히를 슈중으로 다려간후로부터 두구바회근처에는 날로 풍랑이  
 심하야 일과도항상흐린날이만하야 물스식 무리가 지져귀여 그바회근처로 모  
 혀드논모양은 무슴물건을보았는지 아저못하겟스며 침침철야중에 다만하늘에  
 보이는 두기의 별이 두구바회근처에서 광채가낫타나니 경즈는 이것을 봄이 심중  
 에 묵스히괴억하는비잇서 고요히하늘을우러러 축원하기를 마지아니하도다

그잇든날아침에 서병삼은 다시 양신관에 일러 경즈에게 면회하기를 간청하  
 논지라 그러나 경즈는 역시 전일과달음이 업서 거절하야 보지안이 하코 돌려보  
 니인후 경즈는 유모와한가지로 아들의 산소에 올라갓더라

다만보건디 두기에웃듯흔 토만두(土饅頭)는 아즉 흙도마르지 안이 하얏는디  
 그압호로 치마로 일골을 가리우고 처량하게안져잇는 두녀즈는 다르니안이라 경

조와 유모 두 사람이러라 경조는 희음업는 눈물이 잔디를 적시어더니 간신히 진정하여 몸을 일어나 그 곳을 차마 떠나지 못하여 그 무덤을 휘도라 한 번 거름하고 경조는 다시 유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보게 유모 나는 일상 여기서 이 산소압해서 살았스면 도겟네」  
유모는 눈물을 금치 못하며

「네 저도 말씀이 올시다」

「여보게 그리고 나는 유발승이라 도 되어서 이 압해다가 조고 마흔 암조나 하나를 짓고서 평생을 지냈스면……」

유모는 얼굴에 슬음이 가득하여 뒤 답을 일우지 못하고 다만 흐르는 눈물을 씻고 잇슬뿐이라

「여보게 사름 못치 독흔 물건은 업네 그러 옥남이 정남이 두 형대를 이 와 못치져 막하고 소슬흔 산중에 다 가 넘어 내려 두고 나는 참아 발셀이 돌아서지 안이호네 그러 그……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뼈가 녹…… 룩는 것……」

그후는 목이며 여 말은 일이지 못하고 다시 늑기여 가며 흥곡한다 유모는 무슴말로 위로하면 도흔는지 요령을 잊지 못하여

「아이 참그렸습니다」

한가지로 오열 체음하기를 마지 안이 한다

한참 있더니 경조는 눈물을 써스며

「여보게 유모 이 이들이 덩녕이런 산중에서 외롭겠지…… 그러치만 저의 형대가 흠씩잇스닛가 조금나을까…… 이 이히 형대는 엇던 세상에를 가던지 남에게 미음은 밋지 안이호고 귀염을 밋을 줄로 아네」

「그러습니다 도척이 가 안인담에야 아기네 못치 남에게 보이는 이히에게 귀흔 미음이 엇지 안이 나 겠스닛가」

한며 눈에는 눈물이 말을 써가 없다

경조는 두 무덤압해서 타서 오르는 단향연기를 정신업시 건너다보더니 급히

유모를 부르며  
「아 여보게 더것 좀보게 옥남이 산소압해잇는 향불연기호고 정남이 연기호고 우에 올라가서는 한 줄이 되어 바리네 그러」

유모는 눈을 써스며 향의 연기 오르는 곳을 조서히 바라보더니

「아이머니나 정말그렸습니다 그러…… 이상도 합니다」

경조는 황연히서서

「두 이히들은 아마 지금도 서로 손목을 붙들고 단이 겠지…… 응여보게 연기를 나오는데를 가만히 보고 잇스닛가 두 이히 얼굴이 보이네 더게…… 더 것이……」  
한며 경조는 손을 버리고 연기 속에 잇는 이히를 붙잡고 조하야 가는 것을 유모는

황망히

「여복시오마님 정신처리셔요」

데사십일회

경조의 노주두사람은 이윽도록묘전에서 비회하며 참아그압을 써나지못하더니 할일업시 발스길을돌니여 서로위로하며 소나무스이로 쥬고마흔 초동의길을 츠즈나아가며 주막을향하야 내려온다

그산을다지니여 내려오기까지 옥남정남의얼골이 안전에 현연히보이는듯흔 디 다만흔은것은 눈물이라 이곳을떠나가기섭々흐름암에 즈연히치는거름도 지々하야 삼속々치길을츠즈나려오는데 뒤으로서 엇더흔사람의불은소리 들 니인다

경조는 불은소리에 째짜놀니여 뒤를도라다보니 이는 다른사람이안이라 어 제로부터 오늘까지 수습츠를 경조에게 면회를청하엿스나 거절하코보지안이 혼 서병삼이라 서병삼은 경조를만나고즈하다가 인하야 엇지못하코 이곳에서 경조의오기를 기다리고 잇던터이라 경조는 심중에가장 평안치못하마암이 일 어나 강잉히 스씩에는 낮하니지안이하코 서병삼을다시바라보는괴식은 완연 히 추흔물건을 상디흔것々흔형용이 나타난다 서병삼은 압흐로々가히는아오며

쌍 옥 누

「여기서 일어하게 만나뵈오니 너모다헉하오 어제오날 여러번을가셔뵈오라 하여도 도모지만나지를못하여서 대단이마음에 섭섭하더니 실상인즉 과연 기히할말삼이잇셔서 여괴셔기다리고잇던터이오」  
하며 말하는모양이 무삼의미가잇는듯도하며 비참흔괴식도보인다 경조는심히 물풍정흔언스르

「나는다시 당신을 뵈을일도업습니다 그런사슴으로 몇번이나나 잇는곳으로 츠져오시는것을 만나뵈음을지를 안이하얏는디 이런디까지 좃츠와셔 가는사 름을붓잡고 여지로말슴을 하겠노라하시니 나는디단이 무례흔졸로 칭각흔 니다」

「그저 무례흔졸도 모로는것이 안이지오만는 잠간만 뵈말을드러쥬시면 도케 소」

경조는 머리를숙이고 디답이업는디 그유모는 서병삼의 눈짓흔을알아보고 멀 시시간이물너간다 경조얼골을돌어 서병삼을바라보며

「무슴말슴이오닛가 어서하시시오」

「그말슴도 지금하려니와 그간에너가 정협관을차져가셔보고 그디를변명하 여쥬기위하야서 전후스를모다 나의죄라고즈복하코 정협관의미음을 도리킬 가하엿더니 렬셔갓흔정협관의미음은 조곰도움작이지 안이하는구려 나는실



상징가에 정협관과 그티의인연을 다시 계속하도록 하여 드리는 것이 나의 책임이오 나의 죄를 얼마간이던지 속량방법이라 하여 무한이 힘은 썼지만은 정협관의 마음은 조곰도 움직이지 아니하니 너희로는 도저히 할수업습디이다」

서병삼의 말이 다스리지 못하여 경주는

「네 그 말씀을 하시라고 그리하셨습닛가 그 말씀 지금 님가 다시 더 드릴 것이 업서요 당신이 아모리 말씀을 하시기로 한번 결심한 일이잇스닛가 남의 주선을 입어서 다시 정협관에게로 갈 생각도 업습니다 그런 쓸티 업는 걱정은 그만두시는 것이 도로혀 도치오」

서병삼은 열심으로

「안이 그 말만 하자는 것이 안이라 정협관의 결심이 그와 같고 그티가 역시 정협관의 집에를 다시 드려서 지 못하겠다고 맘을 결단하셨을 것 같으면 이제 서병삼이가 그티에게 사과를 하고 그티는 나의 전일 작죄를 용서하여 주는 기회를 주어야 안이하겠소」

「나는 지금와서 조곰치라도 당신을 원망하지 안노라고 전일에도 말씀하지 안았습닛가 그러헌데 지금와서 다시 사과니 할 실일이 무엇이 오닛가」  
서병삼은 허허우스며

「그러케 몰종지게 말을 것이 안이라 그티의 생각에는 그러할는지 알수업스나 나는 오날날까지 그티에게 티를 조곰도 벗지를 못했스닛가 이제야 비로소 죄를 써다른 나로 말하면 그티가 오날날이와 같치 불행하게 된 것도 모다 나의 탓이라 엇지 님가 마음이 편안이 잇슬 수가 잇소 지금 저서히 알아 두실 것은 나노임의 어제날까지 잇던 서병삼이가 안이라 다소간 인정도 알고 자비도 알았는고로 총심으로 전일의 죄를 뉘우쳤스나 오날부터는 그티의 노예라도 되겟고 그티를 위하여서 하는 일에는 견마 지로를 사양치 아니하오리다 지금 말씀은 조곰치라도 간스이 하는 말이 안이니 이마음이 그런 줄이나 알아 주시오 그리고 다시 한마디 말씀하는 것은 님가 조곰이라도 정욕(情慾)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안이라 걱정서 그티를 만나서 위협하던 서병삼은 밧서 죽어서 업서지고 지금은 량심의 자극(刺激)을 밧아 회개한 서병삼이가 그티를 위하여서 장터에 그티의 몸을 보호할야 드리고자 하오니 전일에 간혹하던 사람이라도 뉘우치면 이와 같치 관후한 사람이 된 것을 알고자 하니 제발나의 소원을 드러 주시오」

「그러면 나를 엇지 하게 다 하시는 말씀이 온잇가」

서병삼은 쥘쥘하더니

「그런 말이 안이라 내 말을 저서히 알아 들으셧스면 다시 한번 이서병삼과 한가

자로원만호가정을 만달았스면……」  
 「네 그러면 나 다려다시 당신의 안히가 되라 하시느 말씀이요」  
 「네 간단히 말을 하느하면 그 러한 말이니 아모조록 거절하지 말으시고 나의 회  
 과한 마음을 가상이녀이여셔 드러주시기를 바라오 이 말씀을 그 덕이듯고 안이  
 듯는덕에 나의 신명이 좌우간에 달나잇스니 급히 생각하여셔 뒤답을 하여 주  
 시오」

하는 서병삼의 말을 이윽히듯고잇던 경주는 몸을 뻗어 쉼며

「나는 인제는 홀어미로 평생을 지낼터이니 그런 말씀은 다시 하지 마오」

분연히 말을 맞치고 유모를 경주는 소리쳐 불은다 서병삼은 항망히

「여보 잠간 참으시오 다른 사람에게 서로하게는 것이 안이라 우리는 옥남이라

하는 아들까지 나앗든터이오 오늘서병삼은 전일서병삼이가 안이니 그분간은

다른사름과는 다르지안소」

「네 그 말씀은 알아들었습니 다만은 남의 신제도 다시는 안이사조고 이몸은

결심하얏는디 더구나 남의 안히가 다시되라노말은 더욱우순은말씀이올시다」

하는 유모를 다리고 다시길을 차차나려간다 서병삼은 락망하며

「여보그러면 아모리하야도 나를 용서치 못하겠다 하는 말이요」

「네 아모리도 나는 혈슈업셔요」

하는 어름갓흔터도로 거름하여 내려가니 서병삼은 할일업서 우두커니 서서 그  
 나려가는 곳만 바라보고잇는디 얼골에는 무흔 흉한(痛恨)흔 괴식이 나타나다  
 라

데사십이회

경주는 서병삼을 썩리치고 유모와 혼가지로 나의 류하는 처소로 도라오니 주막

사름이 황망히 나오며

「아이고 마님 인제 오심닛가 지금 영감씨 텃보가 한장이 왔는디 영감씨서 곳

마님을 엿쥬어라 하시셔 막나가라고 하는 후에 오셨습니 다 그러」

경주는 텃보왔다 하는 말에 가슴이 울니이며

「응 텃보가 왔셔 텃보가 어디서 왔든가」

하는 무한이 근심을 하고 정옥조의 잇는 방으로 향하여 영창을 열고보니 정옥조는

한장 텃보를 압헤놋코 팔장을 세고 눈을 감고 정신업시 무슴싱각을 곱히하다가

문열니는 소리에 눈을들어 경주를 보더니

「응 어서 오시오 지금 주인다려 엿쥬어오라고 말을 막 하엿더니」

하는 말하는 괴석이 심히 이상하리라 경주는 더욱 의심이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금 주막 주인에게 말은 들었지요만은」

하는 정옥조압호로 갓가히나아가안는다

「이던보가 공주장인탁에서왔소」  
 「아이고 이던보를 우리아바지씨서하셨셔오」  
 할며 던보를집어보는손이 별々떨니이여 피고즈항는괴운이업다 그던보에씨이  
 기는이와갓호니」  
 「부친작고 급々상리」  
 보기를맞치미 경즈는  
 「악」

항는소리를저르며 뒤으로쓰러지더니 괴절호여 정신을처리지못한다 정욱조는  
 앓짜늘니여 급히안아일으키며

「여보부인 정신처리오」  
 할며 불을써에 문밖게잇던유모가 그소리에늘니여 다름질호여 방안으로드러  
 오며

「아이고머니 마님 이게웬일이심닛가 령감마님 이를엇더케흠닛가」  
 할며 창황망조호여 엇지호출을 아지못한다  
 「어서 링슈를써오게 저괴물이잇구면」  
 두스름이 빅반으로 구호호는동안에 경즈는간신이 정신을차리여 눈을실낫만  
 콤뜨는지라 정욱조는 다형히녀이여

「어—정신이낫소」  
 「아이고 마님 이게웬일이심닛가」  
 경즈는겨우 입을열어

「네 관계치안어요 정신낫습니다」  
 「자—이물을 한목음자시요」

서리마즌 풀입웃흔몸을 안겨잇셔々 간신히팔을들어 물을받아마시는 경즈의  
 얼굴을 물그림히드러다보는 정욱조는 비창호괴식을 금치못호는티 경즈는 눈  
 을다시감으며 고기를들고 천정을향호야 길게합숨짓는다

경즈는 점점물러은정신이 도라오미 그몸이 정욱조의 가슴에 의지호출알고  
 「아이고 황송호오이다 그만 이물을노으시지요……인제는정신이 낫습니다」  
 할며 억지로몸을 이러나라호는지라 정욱조는굿호야 말니지도안이호고 안엇  
 던손을플며

「관계치안소 인제는 정신이확실히낫소」  
 경즈는 의복을 다시정히호고 자리를피호야안즈며

「네 아모릿치도안이호요」  
 「마님그런데 던보는 어더서왔습닛가」  
 「공주셔온 던보인티 우리아바지씨서 도라가셨다네」

유모는 이제야 찜찜 놀며  
「이게 원말씀이 온넛가 아이고 세상에 도」  
눈물을 뿌리었다

경조는 머리를 숙으리고 이윽도록 목々히 안젓더니 눈물을 씨스며 었혀서서 잇  
는 유모를 향하여

「여보게 니가 령감씨 좋용히엿졸말씀이잇스니 저네는 밧그로 좀 나가셔 잇게」  
유모는

「네」

티답하며 밧그로 나아간후 눈물에 어리은얼굴을 들며

「령감 우리 아버지는 아마 저수를 향섯나보오이다」

정옥조는 그말은 티답지안이하고

「나는 이지경까지 일을 줄은 물낫소그려」

정옥조는 경조의얼굴을 보지안이하고 고기를 기우리고 침음하는 모양이라

경조는 다시 천연홀티도로 정옥조를 향하여

「아버지의 도라가신일은 지금와서 엿지 흘슈잇슴넛가 그러나 다만 소원이 한  
가지잇스니 그 소원을 드러주시겟슴넛가」

「응 무슴말씀이오」

경조는 손을쌍에 집고 공손히

「다른말씀이안이이라 오날는 령감과 인연이 씌어지자안이 향엿더라 향야도 이  
와웃치추흐몸으로 엿지 령감안히라고 말삼을 슈잇겟슴넛가 지금도라가신 우  
리아버지로 말삼향야도 남々간이 되셔 령감씨는 아모관계가업는 남이올시  
다……그러홀고로 우리 아버지의 장소에 회장향여 좁시샤 홀넛치는 얼블슴니다  
만은 지금 소원이라고 말삼홀말이 그말삼이올시다 영감의 향에 엿더호오신지  
요……조금치라도 이추흐몸을가지고 영감을 떠는기가 어려워셔 이런말삼을  
향는것시안이라 아버지의 장소지니는 날까지 부々간 갖치아시고 초종법절  
을도라보아주시면 그은혜는 빅골단망이올시다 우리 아버지께오셔 로리에……  
……이불초홀녀식을 두섯다가 스회겸아 들을 구향셔셔 나의몸을 의탁호노라  
고 항상말삼을그리하시더니 오날와셔이와 갖치 비명에도라가시니 그죄는모  
다이몸에잇슴니다만은 영감의손으로 우리 아버지장스나 지니여주시면 도라  
가신 아버지라도 원을푸시고 도로허우슴을먹음으실듯호오니 마지막으로 이  
소원하나만 드러주시기를바람니다」

정옥조는 창연히말을듯기를 다향더니 길게한숨지으며

「그말은 참당연홀말삼이오 니가아모리 무정홀스름이기로 그 소원이야 엿지  
못는는 다 흘슈잇소 니가전일장인의 티점으로 말삼을호기로 너의도리에 당연

훈일이넛싸 장스는 우리가치가서 지너려니와 장스안에는 부인과의 리 혼  
관계는 발표하지안이홀러니 그리하시오

경조는 그말을듯더니 깃거운눈물을흘리며  
「아이고 이리케말삼을하야주시니 코마운말삼은 엇다가비하야 말삼을엿줄  
슈가업습니다」

정옥조는 한참잇더니

「그러나 정남의일쥬일되는 제스나 지너쥬고 가즈하얏더니 다른급훈일이 성  
기엿스니 그일은맛참 어제셔올 우리집에서 나려온하인에게 부탁하고 우리  
논몬져 올라가게합시다 오날저녁에 맛참여의셔 군산으로떠나가는 룬신이  
잇다하니 그전편으로 군산(群山)까지가서 군산셔다시 쇼중의선(小蒸汽船)  
을타고가면 일쥬야동안이면 공쥬에도달할터이니 그리하옵시다」

정옥조는 일변으로 하인을불너 뒤일을부탁하고 급々히항장을슈습하여 정옥  
조 리경조유모제사들은 목포에서 오후오시에 출범하는 룬선을타고 군산을향  
하여가니라

그잇흔날오전에 군산항에도착하여 소중의선을잡아타고 마산(馬山)을향하여  
다시러전(太田)까지가는의선을타고 그날점으려셔야 티련에도착하얏던디 일  
행삼인은 그곳에느리며 공쥬음으로가는 마차를타고 성화갓치모라셔 읍너로

향하여 달니여떠나더라

데 삼십삼회

리괴장은 과연경조가 생각함과갓치 조살을하얏더라

리괴장은 경조의부가가 목포에 일으렷다하는 괴별을듯고 후시경조는 옥남을  
그곳에서 맛나보고 저의아들인줄알가 녀녀하야 즉시로 편지를붓치며 그곳을  
떠나라 부탁하고 그후로는 쥬소로마음을 늦치못하며 밤이면은 몽스가극흥하

여 흥상 염녀를 늦치못하더니 정옥조가경조를 리 혼하겟다는 편지와 경조가  
과연 옥남을맛나 내아들로 인정하고 또는 옥남과 정남이가 슈중고혼을 면치  
못할일이며 조괴는 전일스실을 자복헌결과로 리 혼을당할연유를 하나도 숨기

지안이하고 조괴는 괴별편지를 받아보고 리괴장은 놀너일썸안이라 뜻밖게  
이와조흔 괴별을드르미 홀연정신상실(精神喪失)이되여 그조리에서 혼도(昏  
倒)하는지라 일가々모다 황々하여 구원하야 비로소 인스는추리엿스나 졸연

히 맑은정신은 도라오지안하얏으며 집안에잇는스름들이 그연유를 물으면 다  
만정남이가 물에서 죽음이라하고 옥남은 조곰도말하지 안이하니 여러스름들  
은 말하기를다만의손한나를 금지옥엽갓치 귀히녀이더니 졸연히 이괴별을듯

고 실신(失神)홀인가하야 여러가지로 위로하여 그날은 무사히 지너엿스나  
그날저녁에일으러 정옥조와 리경조의 편지는 써져셔 화로에티우고 조괴는호

을노안져서 먹을가라 정옥조와 경조에게붓치는 류셔를써서노은후 집안스름이 모다곤히잠든스이를타서 환도를늬여 저살하엿는디 그잇는날아참서저집안스름은 전연히아지못하엿더라

지금에 맛참리괴장의집에 이르러 집안스름에게살이여 서레잇는방으로 드러갈썩에 리괴장의저살흔스름은 저저히드러더라

빈소의문을열고 방안에익설스름니불을덜허노은 부친의시례를향하더니 경조는 그부친의시례를 두손으로더위잡고 방성티곡하며 정옥조는 침침흔실늬에 처창흔마음을정처못하며 추연히시레압헤향하얏는디 경조는부친의시례를붓들고 가삼에가득흔말을 다하교저하나 압셔는것은울음이라 다만얼골을들어 부친뺨에다이고 한참동안은 울음소리도업고 괴운이막히엿더라

조곰잇더니 리괴장의유서라고 편지흔장을 정옥조압헤노으며 집안스름들은 편지만전하교 다른방으로피하여가는지라 너른방안에적막히잇는것은 리괴장의신례와 정옥조의부쳐두스름이러라 정옥조는 경조의역기를타스름다리며

「여보 장인썩셔 유서하야두신것을 내가지금읽을터이니 드르시오」  
경조는 우는얼골을 간신히들어 정옥조를바라보며 「네」

경조보아라

「너의저서흔편지는 나도저제히보앗스나 스스히모다 나의가슴을어이느듯하여 그썩에는 잠시괴절을하얏더니 다시싱각을하야보니 모다 이흔은놈에죄로하야 이러난일이니 지금이르러 너의남편다려무엇이라고 말할면목이업거니와 옥남의일에디하야셔는 그유모에게저서하들엇슬듯하니 다시말할것은 업거니와 나의게당하야셔는 처음손저라 항상보고심고 쥬소로잇지못하얏던 만은 너는엇저싱각하는지 조곰도아비는 원망하지마라 스진으로는옥남의얼골을보앗것만은 정말얼골은보고싶으나 한번도보지못하던 옥남이가 정남이를구하려다가 인하야 이세상을발엿다하니 불상흔지잔인흔저 너마음에는엇다가비하야 말을할는지 모로겜다 더구나 너의마음이야오작하랴 그러나 저금은 할일업시되얏스니 너도 운슈로돌네보니고 단렴하야라 그러나 다만 근심되는일은 네가리흔을당하얏다하니 나는그괴별을듯고 더욱오장을갈로어이느듯하다 처음에너를 식집보늬일썩에도 그념려는안이흔것은안이로티요스이일으려셔는 비록전스가란로되다할지라도 리흔서지될리는 만무하리라 고 이어리셔은로부마음에는 안심하교잇섯더니 그마음이 나의잘못싱각인듯하다 너의남편명감의성질은 원티죄악은용서치안이하는 엄한스름인코로 너는오날날서저하로한시라도 마음을편안히지니인날이 업다하니 과연로부

의 잘못이 만도다 지금일으려는 증이 파의라 무엇이라 너를 다시 위로할리 로부  
 는 처음부터 결심한 일도 있거니와 년치도 임의 룩심오세라 오날죽기로 무슴부  
 족함이 잇겟느냐 로부는 이제 자처하여 너의 남편에 로부의 과실을 사과하고  
 또 너의 남편에게 유서를 써노앗스니 너의 남편령감이 죽은로부의 원을 생각  
 할시기로 너를 리혼할 실리는 만무할것이나 너는 아모조록 남편을 다시 정성것섬  
 기여 화합한가정을 만달기를 로부는 디하에 도라간 이후라도 축원을 할리니 다  
 시너의 부부가 무스이지니게 되거던 그러하면 유를 너의 산소압해라도와서 말  
 하여 주면 천만번 염불하나니 보다 나는 그 말 할마디에 극락 세계로 가리도다 너  
 도 그 영감에게 이러하면 유로 비러보아라 그리하여도 영감의 마음이 돌니지  
 안이 할거든 이 유서를 김승지 너외분에게 보내고 조언을 하여 달나 할면 그량반  
 은 네편을 위하야 도려할 실뜻이다 김승지 너외분께도 이 조서 할말은 지금서  
 지 말씀할지 안이 할앗스나 급한디 정을 당하여 네의 입으로 조서 할니력을 말씀  
 할것갓흐면 너의 소정을 공척하여 이여 도라보아 주시지 안이 할리 만무할것이  
 니 너는 명심하여 처스하여라

이 세상을 영별하느니 임하여 너의 얼굴을 한번 다시 보고 심은 마음은 진실로 간  
 절하나 그 도 할지 못하고 디하로 도라가는 로부의 흥중을 살피여 주기를 잊는다  
 삼결혼 세상을 하직할새에 네 얼굴과 정남의 얼굴을 다시 못보고 가는일이 이

세상에 제일 유한이로다 그러나 로부는 정남과 옥남은 황천으로 가서 조손이서  
 로손을 잇글고 화목히 지니고 조도로 허든스 할마음이 업지 안이 한다 너도 안심  
 하여 지니여라 하고 십은 말은 티산갓흐나 다만 막히는 것은 가슴이라 붓곳이  
 보이지 안이 하여 이와갓치 슈즈에 닳치니 그 후에 일은 다만 너의 깨미노라

년월일

부철서

데사심사회

부친의 유서를 읽기를 다함이 경조는 홀연 그 조리에 업더져 유서를 보듯고 통곡  
 할기를 마지 안이 한다 임의 전보를 받았을새에 부친의 성품으로 조처할 신줄은 짐  
 작할앗스나 이 유서를 볼이 더욱이 부친의 조이 할시는 마음을 식로히 빼에 스 못  
 처도록 감스 할마음을 익이지 못하며 부친의 모다 나의 과실로 인정하야 이와갓  
 처 비명에도라가 심을 면치 못할것늘 이 몸의 죄악은 조곰도 말할수지 안이 할  
 고 다만 당신의 잘못 할연고이라고 조처할시고 불초한 이 몸을 위하야 도라가시는  
 덕서지 밋치시는 마음을 생각하니 부모의 조식 사랑하시니 마음은 이와갓치 불  
 초할몸으로는 분골쇄신이 되더라도 그 은혜는 감지 못할것스며 이 몸의 죄악은 더  
 옥스스 중하야 가니 어니 날일으러 천벌을 면치 못하리도다 실로 경조의 구곡간장  
 은 모다 불에 탄 자와갓치 되는도다

부친의 이 죽임은 정옥조와 이경조로 하야 금 다시 인연을 잇고 조하야 정옥조의 마

음을 돌리고 조흔이라 그러나 인연은 임의 스어 져거늘 부친이 이렇듯 이 몸의 장리를 위하야 목숨을 씀으시니 비록 불초흔이 몸이라도 영원히 다시 남편을 의지치 못하면 도라가신 부친의 호령이 구천디 하에서라도 안심을 하고 못지니시리라 경조는 암골을 들어 능히 남편의 얼골을 바라볼 괴운이 업시 다만 늦기여 체음 흘뿐이오 정옥 조는 눈을 감고 다만 한숨을 짓는디 그 무름우에는 리괴장의 유서가 펼쳐노엿스나

일전에 부친 편지를 받츠와 녀식을 리흔호겟노라 하시느 조셔호말숨을 부옹의 생각에도 당연호말숨이라 호오나 목숨을 바리는디 임호야 한가지 소원을 말숨호겟스오니 잠시 살녀 주시기를 바라옵

부옹의 잘못은 한두가지가 안이로디 불초흔 녀식을 속이여 그디에 게르 출가케 호는것은 모다이 늙은제아비의 허물이라 녀식은 그세에 다시 남에게 가서 전절을 밧들몸이되니 부친씩셔 정히 이렇듯 권호오시면 저의 전일 허물을 남편될사름에게 일사히 조백호후에 허락을 밧아가겟노라 고집호는것을 이 늙은몸이 죽기로 썬 권호여 호일업시 아비한아위호는마음으로 드디여 제몸은 도라보지안이하고 그디에게 인연을 밧진것이니 녀의 녀식의 가궁호마음은 이제와셔 모다이 늙은스름의 눈물을 도을뿐이옵 그후로 녀식은 그디의 사랑을 밧고 또는정남이 서저나 아셔 화할히 지니는 모양을 보디 이제는 다시 염녀가 업슬줄로 아랏디

니 세상일이 여의치 못호여 조식은 항상 량심의 붓그런몸으로 하로도 편안호마암을가지고 지니인날이 업다호니 이마암은 그제야 비로소 전과를 썬다라 그디에게 디호야 면목이다시 업스나 이는 모다이 늙은스름의 죄책이라 조식에게는 조곰도 허물업는일이니 나는 오늘날 목숨을 씀어 그디에게 스죄호오니 전일에 지은 허물은 모다 용셔호여 주시고 조식은 다히히 금일씩지 동거호엿스오니 불상히 생각호시는마암으로 리흔만호시지마라 주시면 이몸은 구천디하에 가서 라도 질거이지니 겹스오며 녀식으로 말숨호면 정남이 도불히히 일어바리고 그 후에 리흔씩지호야바리면 그조식은 다시이세상에 살아잇지 못홀터이오니 녀의 녀식을 오날날씩지 지니오신정니로 목숨을바리는 이몸을 생각호시고 리흔은 말으시기를 천만번 손을 들어 축원호옵

년월일 부옹리괴장 돈서백비

정옥 조 전 보기를 다함이 정옥 조는 간신히 얼골을 들어

「여부부인 지금장인게서 호신유셔는 조셔이외와소 장인씩셔 이와갓치도라가시는디서지 일으시면서 나다려 청구호시는말숨을 내가안이듯는다호여셔는 인정이안이요 나의도리도안이닛가 나의전에 먹엇던마음을 돌니여부인을 리흔은 호지못호겟소 영구히 부인은 정옥 조의 부인이라 는일음을 유지호



도록항겅소만은 다만장인의 소원을 맛추어들이고자하는 마음이오 김히부인  
 이라도 생각항야들일은 리혼은항지안이훈다항더리도 우리의 전일갓흔 너외  
 의 정니는 도더히회복할슈업고 다만일홈만전일과갓치 들썩이니 조금이라  
 도 나의항는일을 야속히아지마시요」

경조는이말을드르미 일변으로 반가우며 일변으로 섭々훈마암이일어나는 본  
 티에 다시잇지못할인연으로 결심항엿던티이라 엿지도로혀 남편을원망항리요  
 도로혀 자기에게티항야는 과분할일이라싱각항야

「네 그말씀은 자서히알아듯겅습니다 이렇도록 후히말씀항여주시는디 조금  
 인들 령감을부족히알사름이 어티잇겅닛가 이말씀을 도라가신아바지가드  
 르시면 디하에서라도 아마눈을감고 편안히계실듯항오이다」

항며 조금이라도 원망항는괴식이업고 조그의운명을 달게보는모양이 더욱가  
 련항다

정옥조는 엄연히 경조를바라보며

「그티의 마암에도 내말이부족항다 싱각지안이훈것갓흐면 너마암에도 티단  
 이만족항오 그러나 나는부인을 안히라항야 전일과갓치 그티의자유를속박  
 항고자항는마암은 조금도업스니 그티의항고조항는일은 나의조곰이라도관  
 게치안이훈티이오 안히라항는일홈을 빌너주는것은 다만도라가신 장인의소

원을듯고항는마암에서 나온일인고로 그러호스정도 그티는김히싱각항야 두  
 시오 그리항고 또한마디말항여들일은 오날々이후로 나는조션던디에잇  
 슬는지 또는외국으로 도라단일는지 아직정정은업스나 그티와는는영구히  
 각々거쳐항고조항는마암이오 그리항고이곳에잇는 나의별장은 부인을쥬어  
 이곳에서 살게훈티이오 그가티에는 일년양식은홀만홀 면답이잇스닛가 곤  
 난은면훈티이오 나는다시 이곳에도라올괴회는 업슬듯항오 부인이 여기서  
 지니다가 만일싱활에곤난할일이잇스면 서울본데으로브터 너가사름을보너  
 여 죽々히하여줄티이나 그티는결단코 서울본데는 티왕은항지마시요 그리  
 고우리선조산소에도 단이지마시오 나는어티서지던지 조상의훈령에게 티항  
 야서는 그티를비척안이훈슈가업소 나에게는 일년에한번썩은 편지를항야도  
 도홀듯항나 너가어느곳에잇던지 우리서울집으로만부쳐쥬면 너슈중에드러  
 올티이니 그리항시오 또만일 너가몬져죽어서 장스지는날에는 부인이서  
 올집에올나와서 화장을항야쥬면 그떡은관계치안이훈티이오 만일그티가몬  
 저도라가는지경이면 너가이조선던지에 잇는날이면 그티를너손으로 안장항  
 여줄티이나 선영장스홀일은 너가용서처못항게스니 이러할일을 부인도미  
 리알아두어서 일후에원망이업도록항시오」

「네 일일히즈세히알아드렸습니다 이렇듯널나싱각항시는일도 감스항기축양

이업는디 엇지감히 령감을원망하겠슴닛가」  
항며 디답호는목소리는 한숨과한가지로 나오는데 흐르는더운눈물은 무릅을  
덕시인다

데사심오회

정옥조는 다시경조를향하여

「부인의허물은 즉 너의허물과다름이업는것이니 나는결단코 이러흔말을 누  
구에게던지향하여 입밖게네이지안이호고 우리두사람만알고잇슬터이니 세  
상사름들은 우리두사람스이에 김흔관계는 아지못호고 나한스름만서비를들  
을듯호나 그도네가 이쌍에잇지안이호고 외국으로멀니도라다니면 세상사름  
들은 아마우리부부스이에 무슨일이잇셔는지 아지못홀터이오 그러호나  
던지 부안이던지 입을봉호고 이스정은 발각치안이호도록 호읍시다」

「네……………」

호고 경조는 디답호며

「이러듯후디흔말숨을 도라가신우리아버지씨셔 들으시면 오작조와호시겠슴  
닛가」

「그러나 저방에서는 여러스름들이 기다리고잇겟스니 그만저방으로갑시다」  
「네 잠간만기다리셔요」

항며 경조는 몸을알어 선례를향하여 향로에일속 향을피여노코 고요히업터여  
「아바지々々々 저금말숨을 호령이라도들으섯거든 안심호읍시고 극락으로  
가시옵소서」

빌기름다호후 경조는다시 남편을도라보며

「그러면 인제저방으로 건너가시지요」

정옥조와 리경조의부부간관계는 임의손어지려하던일이 리과장의조살로 인호  
야 다시이은비되엿스니 일로인호야 경조의비밀은 비밀호가온디에못치여 정  
옥조와 경조스이에논여하호스단이잇섯는저 한스름도아지못호는디 일으러더  
라

김승지의부부도 전히김흔스정은 아지못호나 리과장의조처원인을 의심호여  
정옥조와 경조의스이가 전일과다름을 의심호야 그스이에논 무슨연유가업지  
안이호리라고 그옥히성각호엿스며 또한 의아호야 정옥조에게 연유를무르되  
일결저서호일은 말호지안이호며 경조도침묵호여 입을열지안이호는고로 김승  
지의네외는 김흔원인을다시 거듭호야 못지안이호고 다만정옥조의부부간거동  
만살피더라

리과장의장식은 그장성디히지니고 정옥조는셔을본제로 을나왔다가다시 공쥬  
로나려와 몇칠동안을멈을더라

정육조와 경조의 스이는 그 장림담야 비록한집에 거하나 아참져녀으로 얼굴 만볼뿐이오 침실을달니하며 식사를또한달니하야 정협편의부인이라 일크르논 일흠만가져잇슬뿐이오 부부의정리는 추호도업는지라 경조는그를조곰도 근심 하지안이하느니 만일리혼을당하야서 타인과얼굴을들여 감히상디치못할피로 음에비하면 가히세일것도업는지라 그러나 나의몸보다 남편의몸은 요사이로 을적히 날을보내고 잇는모양을 볼제마다 가여운마음과 슬픈생각이 비출디업 시며 항상그를근심하야 엇지하면 남편의마음을위로하야 전일 정육조와가치 다정헌남편되기를 주소로촉원하나 그는임의 물우의거품이라 경조의힘으로는 다시그괴회를 엇을날이업고 다만호홀로 근심하기를 마지안이하며 혹시로는 김승지의부인의 힘을빌고하나 남편의부탁한말이잇는고로 그도할슈업고 다 만을々히날을보내고잇다

이씨에경조는 부친산소에 올라간다는디 하인로과가 드러오더니

「마님 령감씩셔 잠간옵시스고합니다」

「응나를.....」

하며 경조는고요히 몸을이러 남편의방에 다스르니 남편의얼굴은 요사이몇칠 동안에 슈척호형용이 현저히낫나며 의괴저상(意氣沮喪)하야 엇더할스름의 눈으로보던지 전도의 희망을일으스름갓치 보이는지라 경조는홀연남편의 그

얼굴을보고 소스나오는 눈물을억제치못하여 고기를숙이고 남편의엽호로갓가 하나아가안난다

정육조는 옷깃을정제하며 부인을잠간청호일은 다름이안이라.....나는 부인과 결혼하기전부터 철학(哲學)을연구초로 항상유의하는일은 부인도임의드러아 는바어나와 나는이번의다시 그목적을달기위하야서 다시동양만유초로 길써 날터인고로 나의하던스업은 모다관계를삼코 청국인도와 도선일본등지를편 답하야 유산직을짓고하느니 이번떠나면 하일하시에다시 이곳에도라올는지모 로갓고 맛참슈일후에는 부산셔 던진으로가는선편이잇는고로 그비로써날터이 넷가 그말을하조고 부인을청하얏소

그와갓치 말을드른경조는 가슴이막히며 디답을일우지못한다

실로정육조는 세상에절망(絶望)혼사름이라 나의몸을 조포조기하야 일흠은 철학을연구한다 일카르나 실상은인도(印度)와 서장(西藏)등 위험한곳을 탐험하고저함이니 정육조는 인성(人生)의 위험(危險)을 조연호행로난(行路難)으로 잇고조함이라 그러나 전에부인을리호홀씩갓치 분흔(憤恨)혼마음은업는 지라 전에부인스이에논 일즉이진실한사랑을 맛보지못하얏더니 이제경조에디 할야는 정육조가비로소 령성(靈性)의사랑을 획득(解得)하얏는지라 령성의스 랑이라하느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느사랑이니 그사랑은 한번히득하면 다시얻

코자하야도 쓴키어려운사정이라 정육조의 도의심(道義心)으로는 아모리 경  
 즈를 비척한다하야도 정육조의 기본심중에 박이여잇는 령성의 사랑은 녀념지  
 자(念念在茲)하야잇스려하나 잇지못하는티야 엇지하리오 그러나 정육조는 이  
 와갓치신성한사랑보다 죄악잇는몸을 사랑함이도덕상 위반이라하야 령성의사  
 랑을 이저브리며 경즈를또흔 이저브리고즈하는모암으로 츠라리 모험적생활  
 (冒險的生活)을하야 반성(半生)을위엄코자 결심하엿더라

경자는 무한흔슬음을 여제하교 다만머리를속여 고요히듯고잇더니

「동양던디를 도라다니시겟다고 말씀하오시니 제집사람으로 방자히무엇이  
 라말씀은 하지못하겟습니다만은 전일에듯자오니 인도와 서양이라하는곳은  
 티단이위험하다는말을 들엇는디 불가불가서야만하겟슴잇가」

「응 그디방이 위험하기는하지만은 인간생활(人間生活)의 위험에비하면조  
 곰도위험하다할것이업고 또는니가이위결심 하엿스닛가 다시변동할슈업소」  
 하며 하는말이 쥬결하야 남편의결심이 임의움작이지못할줄알고 경자는위연  
 장탄하며 티답이업다

### 데사심륙회

경자는 무슴일을결단하얏는지 얼골을들어 정육조를바라보며

「그릿듯결심을하섯스면 다시무엇이라 무슴말씀으로 말류를하겟슴닛가저

는제죄를 저한몸에 밋지안이하교 모다남의몸에까지 여얼을입으시게하야서  
 지금말삼과갓치 결심하시고 세상에락척하야 지너시려하시는것도 다나  
 죄로……정남이와 옥남이도 남의죄로인연하야 죽은것이오 우리아바지도라  
 가선일도 너사담으로 그러하신것이니 이죄를엇지하면 다시속할는지주소로  
 모암을노를슈업습니다 이제상에잇슬동안은 무슴짓을하던저 이죄를속하교  
 하느님의사업에 힘을쓸가하는디 이티로죄를가지고 공쥬구석에서 썩어바틸  
 모암은 조곰도업습니다 그러나 녀편네가무엇을 하겟슴닛가만은 요사이신  
 문을보오닛가 엇던흔병원에서 간호부를모집한다 하기에 그게라도하야보면  
 엇더할는지 모로겟셔요 더구나요스이는 전염병이 티단이유행하야서 사람  
 이만이죽는다하오니 간호부로서 너힐것은 병인을간호하야서 열사름중에  
 서 한사람이라도 살너너이면 적선이될가하야서 요사이로 그싱각이점々 긴  
 할여지는데 영감씩셔 그말을허락하여주시면 조흔듯하오이다」

정육조는 그말을듯더니 가장마음에 감동되는일이잇는지 이윽히안지잇더니  
 「부인의모암은 티단히조흔마암이요 부인은나더러 물을것도업스니 마암잇  
 는티로하엿스면 조흔듯하오」

경자는 깃거운마암을익이지못하며

「영감씩셔 그레케쾌락을하오시니 너마암에엇지조흔지 모로겟습니다 그러

면 항로박비 간호부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후로 몇칠을 지니여 정육초는 여러 사람의 권고듯지안이하고 표연허부산으로 내려가서 괴션을 타고 청구던진을 향하니라 몇칠후에는 경주가 또 한어나유 명호병원에 특기간호부(特看護婦)로 출석하였더라

이국부인회적십자평양지부병원(愛國婦人會赤十字平壤支部病院)에는 셋갓흔 간호부한사람이 나타났스니 박이호성결과 천절한 마음으로 무슴일이던지 출실하며 아름다운용모와 다정동작으로 경주는 간호부의 흰옷을몸에걸고져 십자표부터 흰모자를써스니 엇더한사람이보던지 런상신녀가 하강할것갓치 아람답다

경주는 비록간호학은 비호지안이하였스나 령리호천성으로 능히병자의간호하는방법을 허득하여 시간과약을써에맞초아쓰며 의사의명령을 억의지안이하고 빅스의질서를 일치안이하며 또청결을주장하여 병인의침구와 의복이며 병실의쓰는제구까지도 청결하여 티끌한아이업고 병인의중세를 저서히주의하였다가 의사의문는말에 지레업서 민첩하게 대답한다 그러함으로 일반환자는 경지를밋고 샷듯호동정에 감복하여 경주의일은은말은 조곰이라도 어귀일이업스며 병인을감복케함으로 뉘안이복종하는지업스며 기외에 간호부의말은 병인중에 거역하는지잇스나 경주의말은 추호라도 복종안이치못한다

쌍

옥

누

경주는 간호부의직무로써 가장부인의 스업으로는 교상한다하여 현신덕으로 그스업을 온전이하고저하여 종스한다 이와갓치 평양에서 경주는 병원중에서 세계의모범될간호부라하여 일반이 존경과우타로지니는디 이세는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망자가 련락부절되되 경주의슈중에서 치료하는스름은 일々히전과하니 여러병인은 의사를 칭찬하니보다 도로혀경주를 입에침이업시 찬송한다

데사십칠회

그뿐만이라 이와갓치 아름다운 간호부의천절을 한번밋고저하여 심치안이호 병인이라도 그병원에 입원하여치료코저하는사람이적지안이호더라

살갓차닿는광음은 어나뎃경주로하여곰 평양적십자병원에서 두희의복을지니엿스니 그간에 지니인일은 몽중에북치였고 이제다시 초하절기를 당하였더라 경주는 이곳에일으려 간호학을습흔지 임의일년반이라 그동안에 지니인경험이능히그병원에서 간호부에 리경주를칭찬안이호리업다 얼마안이되어 경주가다시 간호부장이되어 그곳병원에서만 일흔이잇슬뿐만이라 일반의외국의학계에는일기모범될간호부라일카러 송성이랑자하여 그슈하에잇는간호부등은모다경주의덕에 감화되어 지금까지 여러간호부등은 간호부의천적을아저못호고 병자에게로브터 뉘물을밋고 병치료에천소를붓치여 각종폐단이적지안

이할더니 이제는 전혀변화야 모다 조기의척임을세우고 고상한리상(理想)에 향  
할야 진보하는풍속을 양성할야 일반간호부의 기풍을기혁할야 평양적십자병  
원의선용이 조선까지에 나타날뿐이안이라 일본과 청국스름등도 갖거히 이병  
원에 입원코조함에 일으렷더라

쌍

우

누

주무의충실할야 조곰도권리함이 업는경조는 병인을 간호하는가에는 병리  
(病理)의연구하기를 게으르지안이하야 병리에이하야 대강을집착할야 선출의  
스로는 짜르지못할겟스며 환조의진찰함은 간호부의직무가안이로되 보롱시술  
에이하야는 디키안고로 병중에인할야 간호하는방법을 달니 주의함도 스스  
로 세다랏더라 경조는이와갓치 세월을보늬일씩이라도 항상이지못하는것은 남  
편의일이라 조기는이와갓흔곳에서 여러병인을다리고 주야로분주히지늬것만  
은 도로허이몸은 편안히지늬다할지라 그러나남편은 일성을 비관(悲觀)할야  
조포조기(自暴自棄)로 평성을맞치고조 청국과인도지방으로 위험을무릅쓰고  
단이신다하니 지금은언나곳에서 었지하고지늬는지 지금도 안심치못할시교  
락망중으로 마음이 비희할시난지 다만남편의 스정을 생각함의 추쳐마다 슈심  
만일으킨다 이날도병원들압해서々있는 옥々청々흔희々나무 그늘아리에서 호  
을로교의에 몸을의지하고 한손에미션을가지고 게으르게움작이늬디 홀연마  
음은 남편의신상에서 비희한다 이씨에 병원하인으히 한아히 손에던보홀장을

들고 경조를초조와셔 유는지라 경조는급히전보를 바다들고 조서히보니 이는  
곳경성 정옥조의 본제에서 경조에게 붓친것이라 경조는쌈짜늘너여 붓을뜻고  
보니

「협관영감 병환위중 지금장기병원에 입원할야 조로부인을부른다하니 그곳  
으로 지금출발」

던보를보기를맞치면 경조는홀연교의에서 떠러져서엎드린다

쌍

우

누

정옥조는 인도로서장으로 단이다가 그곳에서 가장위험한전염병에 걸니여 목  
숨이 위티흔지경에일으미 급히선편을구할야 귀국하더니 일본장기(長崎)에도  
착할야는 병세더욱심할야 말근정신이업는고로 그곳엇더할병원에 입원할야는  
디 그병원에서 정옥조의본제로 괴별할야는고로 서울본제에서는 이말을듯고  
급히그뜻을 경조에게전보로 전할야는디 경조는남편이 조로조기를찾는다는말  
에 경조의 가슴가온되는 었다할야슬이오 경조는다시던보를받아들고 바라보는  
디 떠러지는눈물은 던보를쳐시인다

그러나 남편의병은 어나날부터시작할야 어나날병원에입원할야는지 조서치못  
함으로 경조는더욱이 마음이노이지안이하다 전염병이라하는것은 시가를다로  
는병인줄아는지라 잠지도유저할지못할리라할야 곳 원장에게연유를말하고 잠  
시휴가를청구함의 원장은꽤히허락할며 병인의치료하는절조와 전염병에이하

주의를 자서히 설명하여 주는지라 경조는 공손히 감수하려 하고 그날로 평양서  
귀츠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여 떠났는데 맛참 장교로 향하는 선편이 있는고로 그  
선편에 몸을 붙치여 망망한 현히란(玄海灘)희상에 몸을 띄웠더라

경조는 장교항에도 착함이 곳인력거를 타고 그 병원에 이르러 온뜻을 전함의 병  
원々이 하로 여러의 스들도 병인이 심히 찻던 그 부인이다 여러움을 깃거하여 정  
욱조의 병세와 약용법절을 지서히 들었는디 경조는 아직 목숨에는 관계가 없음을  
깃거워 한다

원리 그 병원에서는 조선사람으로 장교의 학교에서 졸업한후 실디연구를 할기  
위하야 와셔잇는 스름이 잇는디 이 스름은 정욱조의 병에 주임으로 맞은 사람이  
라 그런고로 경조는 그 스름에게 지서히 말을 드렸더라

경조는 조선사람의 스인고로 남편이 누어잇는 병실로 고요히 드러간다

데사십팔회

가슴의 요동을 진정하여 경조는 남편의 병실로 드러가니 정욱조는 철제와상  
(鐵製臥床)우에 흰셔양복으로 두루막이갓치 지어남혀스며 팔과다리는 붕디  
(紉帶)로 감아 반드시 누엿는디 팔과다리는 굴근근으로 와상에 미엿스니 경조  
는 그경상을 첨아정면으로 보지못할너라  
조선사람의 스는 심히가엽셔호모양으로

「언의씨든지 이와갓치 미여두는것은 안이올시다만은 이번까지 세번스지인  
디 아모리위로를호고 세우쳐도듯지안이호고 틈을보아서 사름만업스면 문  
밖으로 뛰어나가려호시고 쓰는지쳐호라호시는사름으로 이러듯전신을 잡  
아미여노앗습니다 당신씨셔도혹시 아시는지모로갓지오만은 열병이라호는  
것은 종々이러호중제가 잇는법이닛가 크게정호것은업습니다」  
「네나도그런줄은 디감합니다」

경조는 남편의와상우에 감히갓가하지못하다가 간신이머리맛호로 갓가하나  
아가 반드시누어호침호 남편의 열골을드려다보니 슈척호열골에 빗흔푸르고  
양혈의관골은 옷두개나타났스며 약간슈염은 길게즈라엿크러져서 전일정욱  
조의열골은안이라 이와갓호모양을보미 경조는식호히 눈물을금치못호는디 정  
욱조는 몸을와상우에서 뛰어나리려호며 요동호나 속박호여 노은몸이라 다만  
덥히잇는이불만 흰물스결과갓치 움작이는디

「응 참사름을엇지호여셔……리경조……리경조마누라

경조는 앓짜늘니여 남편의와상압호로 갓가하나아안는다 원리의 정욱조는  
부인경조가 입의와셔잇음을알고 부르는것이안이이라 다만감각이업시 섬어호호  
는말이니 정욱조는 오히려섬어를긋치지안이호고 괴로운숨소리로

「여보 부인……경조……아모리호야도 그다가넉게오지못호깃다 호는말이오

니가 잘못했소 정말 니가 잘못했소니사 인제는나도 기심했소 진정쉬  
웃쳐서 인성의의를전혀오히렸소 나는 지금죽드리도 관계가없스니 다만  
죽기전 한번만맛났스면…… 나는죽쇼 정죽지 살지는못하여 었지하여서사람  
을이러케결박을하여노아…… 괴이한놈들 경즈々々어셔오셔요  
경즈는 눈물을지으며 외상아리에엎드어

「렁감々々 경즈는 여기와셔잇습니다 병환을구완츠로 경즈가여기와잇습니  
다」

할며 일천줄기에 눈물이일시흐르면서 남편의얼굴을 드려다보니 정욱쇼는 밋  
친사람의동작을향며 괴상한눈을뜨며 경즈를바라보더니

「나는몰나 그게누구야 응 어셔이잡아민것을풀어쥬어오」

「니가 경즈야오 령감이부르시던 경즈가내야오」

정욱쇼는 과연경즈의얼굴을알아 보았는지 고요히입을담을고 익히경즈의얼굴  
을드려다본다

「알아보시겟습닛가 니가경즈을시다 힘슈로는 삼년만에뵈옵는 경즈을시다  
지금풀어드릴터이니 감아니게셔요」

정욱쇼는 대답이없는디 경즈는엎헤셔々 조선사람의스를 쳐어다보며

「이병인은니게 맛이여두시기를바람니다 병인의간호하는법도 디강은집착하

는교로 녀려엽습니다 지금미우병인의괴운이 가라안진모양이니사 인제는풀  
어노아도 큰녀려는엎슬드듯호오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々간의 비참한광경을 이윽히보더니 심중으로감동되어  
경즈를향하야

「지금감아니 병인의모양을보니 당신게셔오셔々 병인이디단히안심된모양이  
니사 인제는미인몸을풀어노아도 관계없슬듯호오이다 그썸안이라 당신은듯  
조오니사 조선서간호부장으로 오리게섯다호오닛가 병인의간호하는법은말  
습안이하여들여도 아으실듯호오이다 이방일은모다 당신씩맛기여드리을이  
다」

경즈는 즉시남편의미인것을 풀쳐노으며 다시즈리를긋치여 편안이누이며

「인제는 니가여기와셔잇스니 즈리에셔일어나실싱각은 하시지마르시고니  
게다무슨일이던지 식이시면 도켓습니다」

정욱쇼는 경즈의말을알아들었는지 고리를쓰덕이며 다시고요히자리에누어 눈  
을감는다

데사심구회

정욱조의병세는 처음에원장이하로 모다의스일으던말과는 더욱위중하야 혼  
슈상리(昏睡狀態)에일으렸는디 혀에는빅티가々득하고 치근(齒根)까지부러하



앗스며 시々로근렵업는히소를 말하고 빅담을비앗트며 증세극히위험흔지라  
 경조는심히염녀야야 다른간호부는 일절물니치고 여러히동안경험을엇은 7장  
 숙년흔간호법으로 경조는천히남편의 병을간호하니 실로병인에게티야는가  
 위화타편작(華陀扁鵲)을엇음보다 나으리로다 지금은일신을남편의 병구원에  
 붓치여 주소로잠을일우지안이하고 남편의병을지성으로 간호하니 성심소도의  
 금색을가투라 엇지병이쾌복지안이호리오  
 정옥조의병셔는 날로감호야 전일과갓치와상을떠나 썩여나가려호는증세도  
 업셔지고 의스도진찰호후 불원호야 평복에갓가을일을 담당호는지라 경조는  
 의스의말을드고 가쟝기거히녀이여 더욱간호하기를힘을쓰며 자기도남편의병  
 이슈히쾌복호줄을 자신호더라  
 오륙일을지니여 제반증세가모다 덜니고다시흔침호야 편안이잠을일우는지라  
 경조는스스로서싱각호되 이잠은과연병세를들니여 안은흔잠이니 이잠을 일우고  
 나면 원정신을츄리々라호야 남편의잠든얼골을들여다보고있다  
 병인은 밤이깊도록 썩이지안이호는지라 경조는조로시계를녀여보니 임의밤은  
 심이시가되엿는디 적막흔깊은밤에 달빛은종려입시름으로서여 류리창을지  
 녀여드러와셔 외상우에누어잇는 남편의슈척호얼골을 빛추인다 만되는구적호  
 디 다만병인의호흡호는소리만 그옥이들너더라

경조는 잠시도것호떠나지안이호고 남편의버기머리에 안져썩썩로야물을떠셔  
 입을쥬기여준다 밤이점점식벽에일을떠에 정옥조는비로소 숨을들니며 눈을번  
 적뜨는지라 홀연경조가엮헤안져잇슴을보더니 입에는미소를띠우고 파리흔손  
 을간신히들어 경조의손을휘녀잡더니 말은업고 다시편안호잠을일우어 잇흔날  
 정오까지 잠을썩이지안이호엿스니 정옥조는일로인호야 병근을뜻코 다시이제  
 상으로도라와더라  
 삼쥬일이나지니여 장기로브러인천을향호야 오논괴션갑판우에 정옥조와 경조  
 두사람은 서로향호야 안져셔담화호다 병후의사람인줄은 누가보던지숨길슈업  
 스나 정옥조의양협에는 점점간강이회복되노라고 화석이낫나며 그눈에는싸  
 닷흔괴운과 질거운괴석이보이며 경조는쥬년리로 무한호몸의고성을밧아 심히  
 몸이건강치못호더니 이날은희당화가 아츰이슬을먹음은듯이 화석이가득호며  
 여러히동안을두고 양미간에 은은히숨어잇든 슈심은반공에소스달이 구름에싸  
 이엿다 다시밤은닷시 광명이얼골에나타나며 나히셔지져어보인다  
 경자의얼골과갓치 화려호고 령롱호달은 천심에소사잇셔 고요히만경창파에밧  
 초엿고 셔셔히물에얼골을씻치고 지니여가는바람은 셔늘호마암이낫에 더위를  
 전히이즐지라 씨스듯흔갑판우에 마음에는 티실한아업시 화목히안져 리약이  
 호는져두사람은 진실로진이간비참호스정은 전히이져바틸너라

정옥조는 경조의손을잡고

「여보부인 그티는나를멀니바라지안이호고 잇섯스니 나는무엇을먼저스죄항  
였스면조흔는지모로겜소 그러나 오날저녁에 이비우에서 나의잘못흔일을다  
말하오리다 나는전일에 먹고잇던주의는 모다업서졌소 전일은다 편벽된성  
각으로죄악이라하는디 대항야서는조곰도용서치못흔것이 제일잘못흔성각이  
라 나는죄악이라하면어디서지는지 동정을표하여불상이녀이지 안이호고도  
로혀죄잇는사람을 불상이아는사람이 역시죄악을짓는 사람이라하얏더니 오  
날와서는 과연전일에잘못든마음을 써다랏소 모든세상에사람의몸에 관계되  
는일이 도리도무론보려니와 정이라하는것도 도라보지안이호면 안이될일인  
디……나는이제야비로소때다랏구려 원리에죄악이라하는것은 장려할것은  
안이로디 반다시 비척할것은안이니 엇더흔부득이흔스정으로 인연하야지는  
죄악은 사람의동정은 당연히 받들말흔것인디 만일나와갓치 세상사람들도  
죄악을절티적으로 빅척하면 이세계에는죽은고목나무와 갓하야 썩도업고입  
시도업슬터이니 사람이라하는것은 결단코 그러흔것이안이오……안이참이  
런말은 임의부인은아는일이라 지금다시길게말도업거니와 오날와서 이정  
옥조가다시 회심흔 마음을 저세히부인이숨혀주시오 임의 저의죄를 회기흔  
디스하야서는예슈그리스도이하로 각항종교가모다죄를 용서하거늘하느님

과갓치 신성치못흔스름으로 엇지죄라하며 잘스못을물론호고 용서안이호다  
는일이 어디잇겜소 나는그후로 반민흔 마음을의지못하야 흥상성서(聖書)  
를손에낫치안이호고 마음을위로하더니 그결과로 변연히써다른비잇서 나는  
일도광명(一道光明)을엿섯스나 그째로브러그와갓치 중병이 드러심성구스에  
일으렷더니 다행히부인의힘으로 목숨을구하얏스니 이는하느님이 나를불상  
히녀이샤 그티를멀니보니신일이라 생각하오……전일에도 그러케알지안이  
흔일은 안이지만은 이번갓치 그티의두터운은혜에 가느진정 마음이 감동되  
엿소 이와갓치 아롭다운부인의 마음을 지금서지 저세히알지못흔것을 진실  
로후회막급이오 그러나니가 그러케 병이 드러잇슬때에는 나의뉘웃친 마음을  
다시그티에게 말을할지못호고 인하야죽는다호고 마음의슬픔을 의의지못하  
얏더니 부인이간호하여주신덕으로 다시목숨을보전하야 이와갓치 뇌심스를  
다시부인에게 리약이호게된일도 모다부인과나와 인연이 아조흔처지안이호  
증계인듯하오 아모도록부인은 나의죄를용서하시오」

경조는 다만고기를숙이고듯더니 만감이교집하여 압셔는것은 눈물이라 남편  
의손우에 떠러지는눈물은 다시씻지도안이호고

「나는……이러케절거운일은 참엄셔요」

다시말을일우지못호고 남편의얼굴을쳐다보는눈은 말하나니보다 무량흔뜻

이영과였도다 정옥조는 더욱 말을 연속하여

「그러나 금이라 하는 것은 불에 단련하고 사람의 마음은 곤난으로 단련하는 것이 라 부인파나는 임의 그 단련을 밧는지라 과일의 생각은 다시 하지 말고 다시 밧 은 세상에 나아가서 정신력으로 서로 사람을 마지 안이 하여 밧시다 오날 밤에 이 비는 신희려히 하는 사람을 티운 줄 압시다 그려」

경조는 가슴이 무어

쌍 옥

「너—나는 그 저 반가운 마음에 누물만나 오고 무엇이 라 티답이 안이 나오니다」 남편의 무릎에 몸을 의지하여 황연히 말이 업는디 교々호명월은 두 사람의 부々の 마음을 밧치는도다

누

평양적십자병원에서는 꽃과 꽃은 간호부장을 일었스니 이는 경조가 다시 간호부 장으로 나아가지 안이 흠이라 그러나 경조의 감화로 다른 간호부들도 아롭다운 성질을 지 금 것 일치 안이 하였더라

정옥조의 신희용은 날로 더하여 세상의 인망이 전일보다 비승하고 경조는 정협판의 령 부인으로 모든 사람이 흠앙한다 슈삭을 지니지 못하여 경조는 다시 몸에 티괴잇스니 이 제 일 으려서는 근심 업는 몸이라 남편과 서로 향하여 이번 출성하는 아히는 힘써 가정 교육을 식이여 유익한 인물을 만들고는 남편과 한가지로 절거이의 론한다  
쌍 옥 누 하 편 중

大正二年七月十五日

初版發行

大正三年八月二十日

印刷

大正三年八月三十日

再版發行

쌍 옥 누 하 편

定價金參拾五錢

京城府安國洞百五十二番地

著者 兼 發行 者 金 容 俊

印刷者 申 昌 均

印刷所 朝鮮福音印刷所

發行所 普及書館

京城府安國洞百五十二番地

京城府苑洞二百六番地

振替口座京城八七二番

電話一九〇六番

分賣所 京郷各書舖



不許

複製

李海朝君 編著

增補 六刊

獄中花

충

향

가

定價金 四十錢

京城府安國洞百五十一番地

振替貯金口座京城八七二番

普及書館發行